

第75・76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97. 4. 8. ~ 4. 10.)

('97. 4. 28. ~ 5. 2.)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 75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 97. 4. 8. ~ 4. 10.))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997 • 4 • 통권 제53호

I. 개회식	3
II. 제7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III. 제7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9
IV. 제7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65
V. 부 록	
▶ 의사일정(안)	91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4월 8일 (화요일) 11시 01분

開會式順(第75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식

(사회: 의사과장 이흥무)

(11시 01분 개식)

● 의사과장 이흥무

지금부터 제7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된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개 회 사

(11시 05분)

● 의장 박재현

개회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그리고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싹이 움트고 산과 들에 봄기운이 완연한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에 오늘 제75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됨을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학기의 분주했던 날들은 보내고 금학년도 세우신 계획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계획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면서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국제화·개방화의 무한 경쟁 시대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결의를 다지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며 교육의 지역화를 통한 내실있고 생산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는데 우리 모두의 힘을 한데 모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주민의 자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구이므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

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정 능력 신장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의 내실을 도모하는데 각자의 경륜과 지혜를 결집함으로써 교육자치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3일간의 일정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안건인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은 평소 교육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동안 느끼신 문제점과 바람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같이 생각해 보는 대화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보다 발전적이고 새로운 교육시책 개발과 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4월 8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 박재현.

● 의사과장 이용무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1시 09분 폐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4월 8일 (화요일) 11시 09분

議事日程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7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기타안건 처리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이흥무)
2. 제7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조일환위원외 3인 위원 발의)

(11시 09분 개의)

● 의장 박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흥무

의사과장 이흥무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 4월 1일 조일환위원 외 3인 위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같은날 제97-4호로 집회 공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화기 의결안건 처리 결과입니다.

제74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97년 3월 20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제75회-제1차]

다음은 금회 처리 안건입니다.

금회에는 조일환위원 외 3인 위원이 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제7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11분)

●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제7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4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리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7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 12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조일환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조일환 위원

조일환 교육위원입니다.

본인 외 3인 위원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거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출석 일시는 제7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제3차 본회의 때인 4월 9일과 10일, 11시로 되어 있습니다.

출석 대상은 교육감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법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중 도교육청의 각 국장·담당관, 그리고 과장급 간부 공무원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교육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한 것입니다.

이에 제안한 바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내일과 모레, 제2차, 3차 본회의에서 있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1시 15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금회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이기수, 박동기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7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이기수, 박동기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금년들어 처음으로 본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서는 금일 본회의 산회 후 질의하실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하시어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0 출석위원 : 11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윤.

0 출석공무원 : 16명

교육감 김영세,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김홍목,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중등장학과장 김천호,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박성근.		

※ 부 록

▶ 의사일정안 : 별첨1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4월 9일 (수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이흥무)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조일환위원외 3인 위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은 어제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번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위원은 모두 일곱분으로서 오늘은 김정길, 조일환, 정만재 위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

니다.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1시 02분)

●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질문 요령과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질문을 하실 위원님 의석 순에 따라 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일괄 질문 후 관계관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괄 질문후 관계관별 답변의 형식

[제75회-제2차]

으로 하며 답변 준비가 필요할 경우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은 본도 교육위원회회의 규칙제23조에 의하여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번째 질문자이신 김정길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발언대로 나옴)

● 김정길 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재현 의장님,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교육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새학기가 시작된지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격언에 처음이 잘돼야 나중도 잘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충북교육은 요즈음에 매우 중요한 때라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충북교육이 시작부터 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할 갖가지 현안사업들이 당초부터 철저하게 계획이 세워지고 이행되기를 촉구하는 뜻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뜻을 이해하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부가 금년도에 실시할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해 충북교육청의 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도교육청 평가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평가는 교실수업개혁, 수요자 중심의 학교체제구축, 교육복지구현, 교육행·재정 지원체제, 교육개혁 추진 의지등 5개 영역에 걸쳐 20개 과제를 평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작년도에 교육부 평가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 하위권으로 평가되어 언론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 것은 물론 학부모님들에게는 충북교육을 불신하는 좋지않은 발미까지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평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는 각 단위학교가 시·도교육청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조사키로 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부 관계자가 수시로 일선학교를 방문해서 평가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교육부 평가가 어느정도 정확하게 시행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작년처럼 전국 하위라는 평가를 또다시 받게 되면 충북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

교육부의 '97학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비한 충북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방과후 특별교육에 있어 강사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북교육청은 '95년부터 교육수요자 부담 원칙의 방과후 특별활동 시책을 추진하여 학부모님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함은 물론,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방과후 특별활동 시책은 작년에 교육부로 부터 전국 우수 도로 평가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강사 수급에 있어 일부 학교에서는 몇몇 특정교원을 강사로 배치하여 하루에 3만원 내지 4만원의 별도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교원들이 형평의 문제를 들어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방과후 특별교육 강사 수급에 대한 교육청의 기본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방과후 특별교육에 있어 재정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특별활동은 수요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고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재정관리가 따르기 마

련입니다.

방과후 특별활동과 관련한 재무행정은 철저한 원칙하에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방과후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높여 나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는 수강료 징수를 강사수당 이외에는 과실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별활동 운영에 따른 재무 내용도 학부모님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비해 어느 학교는 강사수당 이외에 과실금을 발생시켜 타용도에 이용하고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특별활동에 필요한 부교재를 구입하면서 고가의 부교재를 권장하거나 부교재 공동구매에 따른 학교와 업자간에 잡음도 있습니다.

방과후 특별활동에 따른 재무관리는 강사료 수당 이외에는 과실금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운영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나 해당 학부모님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방과후 특별활동에 있어 과목 채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선학교의 특별활동 과목을 보면 영어나 컴퓨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예능분야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5회-제2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력부진 보충, 기초학력 신장, 과학 영재육성 등과 관련한 분야에 까지 과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목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중도 탈락한 문제 학생들의 재입학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중도 탈락한 학생들의 재입학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에서도 많은 학생들을 재입학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점들의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입학한 학생들은 대부분이 문제가 있어 중도 탈락한 데다 1년 내지 2년 후배들과 학교생활을 하게 되어 특별한 관심과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걱정이 되는 것은 일부 재입학 학생들로 인해 학교 전체 분위기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이 우선이지만 학생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계도하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재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들이 또다시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가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은 교육의

연장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일선학교에 알아본 바로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청의 수학여행에 관한 운영지침이 일선학교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청의 수학여행 운영지침을 보면 그 내용이 매우 교육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는 관광 알선 업체와 시행계약을 하면서 편의주의적으로 내용이 상당히 변질되고 있으며 부담액도 학교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의 경비는 교육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나 부담액에 대해 학교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선학교가 교육청의 수학여행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청이 지침만 내려놓고 지도·감독을 소홀히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4월,5월이면 수학여행이 시작되는데 일선학교의 수학여행이 교육청 지침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교육이 발전하려면 지역주민과 해당 지역자치단체의 대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제14981호 및 제

2호의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도서관운영비, 학교급식비, 교육과정운영비, 학교교육여건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 있는데도 지역교육청의 전입금 확보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에 전입금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여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청 및 지역교육청 자치단체의 전입금 확보 실태와 전입금 확대 유치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96년도 예·결산 운용에 있어 세입 결손에 관한 질문입니다.

'96년도 예·결산은 지난 2월 28일로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9일 제70회 임시회의 때 '96년도 최종예산을 편성 심의하면서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국가 경기 침체로 '96년도 지방교육 양여금 세입예산중 약 160여억원의 세입 결손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출납 폐쇄기간을 마감하면서 세입결손은 얼마나 발생했으며 세입결손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특별상여금 수당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특별상여금 지급은 본래 목적이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인데 일선학교에서는 특별상여금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본 위원은 특별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을 몇통 접수한 바 있는데 불만의 소리를 분석해 보면, 대상자 선정에 교장, 교감 직권으로 하고 있어 공정성이 없다 하는 이런 여론입니다.

대상자 선정이 주로 승진 서열권에 들어 있는 몇몇 교원 중에서 선정되고 있어 일반 교원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수혜를 받을 수가 없다. 작년에 받은 직원이 금년에 또다시 받아 독점되고 있다는 등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충북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대상자 선정에 직원들의 불만이 많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상여금 수당이 본래의 목적대로 전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환경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환경교육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학교 116개 교중에 78.4%가 환경과목을 선택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74개 학교중에 27%만이 환경과목

[제75회-제2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환경과목 선택 학교가 많이 확대 됐다고는 하지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미흡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환경교사도 농업계 교원을 대상으로 부전공 연수를 시켜 양성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전문교사는 14명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도 환경교사 양성계획도 7명밖에 되지 않아 환경교사가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환경과목 선택 학교를 확대하고 전문교사 양성도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학교의 재생폐품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아가모운동이라 해서 쓰레기를 아끼고, 가르고, 모으자는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일선학교에 확인해 본 결과 재생쓰레기로 부가가치가 높은 우유팩마저도 분리 처리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청주 시내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암 쓰레기 집하장에 가보니까 학교에서 수거한 우유팩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학교에 알아 본 결과 우유팩을 별도로 수

거해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우유팩을 1kg에 85원씩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과 학교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직접 자원재생공사와 연결하여 분리 처리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가모 운동이 정착되려면 학교가 재생폐품류의 수집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처리도 체계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재생폐품류 수집 확대 처리의 체계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결식아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북 도내 초·중·고생 학생중 결식아동은 총 학생수에 0.79%인 2,08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을 해소하려면 약 4억 5,972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의 예산지원은 24.2%에 해당하는 1억 1천 72만 6천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액만큼 어린 학생들이 끼니를 굶으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선학교에서는 결식아동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터에 타기관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할 때 학생들을 동원하는 일이 있

습니다.

학교의 불우이웃돕기 운동은 결식아동 해소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결식아동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결식아동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초등학교 영어교육용 TV보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위해 보급키로한 43인치 프로젝션 텔레비 구매에 있어 지역교육청 별로 구매단가가 심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가격 인상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물품구입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보급이 안되고 있는 지역교육청이 많습니다.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이 시작된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준비를 소홀히 해가지고 신학기가 시작되고 한달이 지났는데도 보급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물품구매 행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일부 품목에 대한 단가입찰을 시행하여 많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작년처럼 교육청이 일괄 단가입찰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3인치 프로젝션 TV는 초등학교와 관련된 물품이니까 지역교육청 별로 단가입찰을 위임한 것 같은데 구매시기가 급박하고 동일 품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괄 단가입찰 해도 될 것을 규정에만 얽매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어 교육용 TV 구매실태를 보면 물품구매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교육용 TV 구매에 차질을 빚게 된 원인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물품구매 행정의 효과적 추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환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조일환 위원

저는 오늘 행정질문에 앞서서 몇가지 부탁드리고 소감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질문이나 또는 도의회 질문 기타의 질문을 몇번 방청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연구내지는 연구·검토하겠다 하는 그러한 본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실제적인 그러한 사안이

[제75회-제2차]

잘 밝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 행정질문을 위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마찬가지로 일개 원어의 준비를 위해서 미숙하지만은 질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집행청에서는 성의있고 실제 우리 충북교육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조사를 하고 한 통계는 어느 지역청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유선 또는 서면을 통해서, 현지 방문을 통해서 객관성있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편의상 교육감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실제 업무는 과장님의 업무가 가장 소상하고 실효성 있다고 봅니다.

되도록 저의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님의 답변을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그리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96년도를 충청북도 교육선진화 착근의 해라면 '97년도는 지속적, 발전적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심화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평소 본 위원 나름대로의 어설픈 식견으로 몇가지 충북교육에 관하여 정책 제시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의 산물이므로 혈세라 표현하는 것도 그 집행의 유효성과 합목적성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의 심의와 결산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편성의 적정성보다 적법한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집행의 본질과 궤를 같이하여 지난해 실시한 교단 선진화의 교재·교구 구입을 기점으로 단가 입찰 제도를 도입하여 약 40%의 예산 절감과 양질의 교재·교구를 구입한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행처럼 집행하던 예산집행 측면에서 정가에 가까운 수의계약 단가의 허실을 보완했고, 거품단가를 제거한 예산절감 효과의 선례는 매우 바람직한 사례로 남을 것이며, 민선 제2대 김영세교육감의 치적의 하나로 영원히 기록될 것을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단가입찰 제도에 대하여 시행과정의 어려움을 감수한 집행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위와 같은 단가입찰 제도의 우수성을 참작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96년도 예산의 절감액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로부터 교재·교구의 선정을 받아 단가 입찰 과정을 거쳐 물품을 구입할 경우 상당 기간이 지연되므로서 적기에 구입하

여 교육현장에 활용할 수 없는 역기능도 있다고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와 같은 물품구매 방법이 학교장 중심의 학교운영을 크게 침해하였다는 여론인 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보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대하여 권유, 유도 행위를 금지토록 지시하는 등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리라 생각되나 기부금품 모금 금지법이 규제법으로 '9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96년 7월 1일부터 도 및 지역교육청에서 자발적인 기부금품이라도 접수할 수 없게 되자 교육부장관이 지난 '96년 6월 20일 기부금품 접수관리 요령을 통보하여 현재 각급 학교의 육성회나 학부모회 또는 후원회를 통하여 이를 접수관리 사용하고 있는데 동지침에 의하면 기부금품을 모금, 할당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강요, 권유, 유도 등을 금하고 있으나 사실상 학교에서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 관리하고부터는 매년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부금이 그러하듯이 자진이란 명분으로 권유나 유도에 의한 기부행위로 물의를 빚는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산지원이 매년 30%이상 증가되며, '97년의 예산지원은 '95년 대비해서 80%가 증액되었음에도 기부금품이 증가하고 있음은 교육세를 감당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부

담이 이증으로 가중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 교육재정이 70%에 불과한 원인도 있으나 현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계부담경감의 차원에서 어떤 명목으로 권유나 유도행위에 의한 기부금품 접수는 금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95년 대비 '96년도 기부금품 총액의 증감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둘째, '97년도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대책을 계획한 바가 있으면은 그 내용의 요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설립 인가후 개교일까지의 법적 과정 소요일수는 900일 내지 800여일이 소요됩니다만은 중복 추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부지매입은 개교 2년전에, 건축은 개교 1년전에 착공되어도 건축공기가 부족한 형편인바 현재의 건축기간의 형편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개교하는 학교의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미준공사태의 건물로 개교하여 안전은 물론 만일의 경우 사안에 따라 시공업체와 발주 또는 감리자간 책임 분쟁의 소재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일각에서는 모든 행정의 표본이어야 할 교육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교육법시행령 55조 및 학교설립인가 사무처리규칙 제2조 1항등 53조와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및 학교교구 설비기준에 명시된 시

설, 설비를 못다 갖추고 개교하고 있음은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관행으로 누적된 개선이 시급한 악습의 순환입니다.

근복적 시정을 위하여는 개교 일정을 연장하는 한편 집행실무자의 사명감과 의지 여하에 따라 개교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소신도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준공전이라 할지라도 예외의 규정을 뒤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한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준공되지 않은 상태로 개교한 사안에 관하여 시정이나 기타 행정적 조치 및 감사에 지적된 바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쾌적한 환경에서 입교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면 과감히 개교일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개정일 변경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비의 절감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20조로 추정되는 사교육비가 학부모의 무리한 가계부담은 물론 사회적·경제적·국제적 경쟁력 약화 등 그 병폐는 망국의 지경에 달해 위기 극복 과제로 등장하기에 이

르렀습니다.

모자라는 과외비 조달을 위해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학부모 사회의 병폐는 오늘을 사는 학부모가 불행한가, 아니면 교육무지의 과육인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난 3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모색한 바, 원점으로 희귀한 바 있고 드디어 당정 정치권에서 공교육의 교육 현장에서 그 해법을 강구한다고 지상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라고 규정하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개혁의 평가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본도가 전국 1위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더욱 방과후 교육 활동을 명예교사나 유급강사를 초빙하여 실비로 희망학생을 공교육으로 유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취학 이전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립유치원의 증설 계획과 취원율을 높이는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종일반 운영계획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 등 체격은 서구화 되면서 커지고 있지만은 시력, 치아 등 체질과 오래달리기, 턱걸이 등 심폐기능과 근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전국 초·중·고교생 788만명의 체격, 체질, 체력을 검사해 표본 분석한 '96년도 학생 신체검사를 통해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 사회학자는 나약한 사회구성원의 미래사회를 우려했고 의학자는 청소년의 성인병 만성질환의 발생 증가로 청소년 조로현상을 개탄한 바 있습니다.

첫째, 본도 초·중·고생의 체격과 체력의 전국 기준과 대비 분포를 설명해 주시고, 둘째, 현재 교육현장에서 실시하는 1교1종목, 1인1기 운동 및 중간체조로는 체력보완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체력보강의 모범적 교육현장이 있으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초등학교 강당 신축에 관한 의안 의결 당시 도로전용법 및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의안이었으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진입 인도상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지난 3일 본 위원이 건축현장을 답사한 바 의결할 당시의 건축 장소, 면적이 크게 변동되어 의결된지 15개월, 현재 기초공사에 불과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과정은 차치하고 유감스럽게 1년여 기간을 건축 심의로 낭비하고 교육위원회의 의결안이 충청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로 부득이 면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

각합니다.

첫째, 예산의 변경이나 면적의 축소 정도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해도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다면 1년여 착공일이 연장되고 건축장소의 이전으로 예산이 약 3억원, 건축면적이 총면적의 2분의 1이상 감축된 사유와 부결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이 발생시 의결한 위원회에 통보할 용의와 본 위원은 충청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부결로 본 위원회의 무능한 것이 노출되었고 위상에 손실을 입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의 주체는 교사입니다.

교사는 교육정책 입안자나 사무처리자도 아니면서 교육 현장의 주도적 수업자입니다.

우수 교사는 열성있는 능숙한 수업자를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재료도 우수한 요리사의 능력 여하에 따라 음식이 좌우되듯이 이상적 교육적 단계별로 재편한 우수한 교육과정이라 할지라도 질높은 수업만이 교육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간 수업방법의 개선·발전을 위해 자생적으로 과목별, 영역별로 연구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은 충북교육의 앞날을 밝게 하는 것이라 사료되오며 자생적 교과연구회의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자생적 교과연구회의 조직 현황과 재정적 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수업경연대회 등 우수교사의 사기진작책으로 연구활동을 적극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청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 교육발전 및 자구 노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도 교육청 종합평가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의 영역을 교육정책 분야 7개 과제, 교육개혁 분야 15개 과제, 총 22개 과제를 심사한 바 교육정책 분야의 7개 과제중 모두가 3위권 밖이나 다행히 교육개혁 분야의 15개 과제중 2개 과제는 1위, 종합 중이상의 평가를 받아 교육개혁 지원금 19억 6천여만원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평가받은 시점에서 여러가지 요인으로 교육개혁 추진상황을 기대했던 바대로 평가받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겸허히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평가 영역이 100여 개에 달해 충북교육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만큼 그 대책도 간단히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은 영열별 세부계획이 아닌 포괄적으로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풍수지탄의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행정질의가 충북교육의 작은 밑알이 되기를 거듭 기원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재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재위원 발언대로 나옴)

● 정만재 위원

정만재 교육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영세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진지역 근무교사들의 주민등록 이전에 관한 문제와 농진지역 근무교사의 거주지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4년 9월 22일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면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육감이 지정한 농진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1995년 1월 1일부터 가산점을 부여토록 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 단서 조건으로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 면단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벽지학교 근무 교사들에게는 해당 학교가 소재한 해당 지역 면단위에 주민등록 이전과 관계없이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토록 되어 있으므로 농진지역에 근무하는 교사와 비교할 때 형평

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4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지정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교원으로서라는 단서조항의 삭제에 건의중에 있다고 교육감으로부터 '96년 4월 6일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교육부에 건의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영장 개장기간 연간 2개월 이외의 기간, 즉 비개장 기간에 대한 직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주수영장, 충북수영장, 충주수영장에는 직원이 각각 4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직원을 개장기간에만 수영장에 근무케 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일부 인력을 타기관에 배치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설공사의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 신축공사의 시설비는 대개 개교 1년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개교 2년전 예산의 확보 또는 9월 개교 등의 조치로 충분한 공기가 확보되어야만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창고등학교에 대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오창고등학교 신축에 대한 예산 확보를 보

면 설계비는 1994년 10월 1일 확보되었고 공사비는 1994년 12월 16일 확보되었습니다.

설계기간을 보면 1994년 11월 7일부터 1995년 4월 18일까지 164일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일을 보면은 1995년도 6월 13일 공사계약일은 1995년 6월 20일, 준공일을 보면 1차 공사는 즉 1층부터 3층까지 그것이 1996년 3월 25일, 2차 공사 각 4층부터 5층까지가 1996년 6월 19일입니다.

개교일은 1996년 3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공사기간이 약 9개월로 동절기 약 3개월을 빼면 실제 공사기간이 약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사기간이 너무 짧다고 봅니다.

4. 1990년 이후에 건축한 학교 건물의 보수현황 및 소요경비 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물이며 건축 보수내용, 보수 금액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95년도 '96년도 교직원 및 고교생의 해외연수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수와 연수내용, 연수기간 및 성과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송계초등학교 및 한수중학교의 통합 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도내 초등학교 4학년이상 학생중 한글 미해득자의 구체적인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도별로 한글 미해득자를 보면 1995년도에 856명, 1996년도에 484명이 됩니다.

이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에서는 한글 미해득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많은 숫자의 한글 미해득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상의 학생이 한글을 정상적으로 읽지 못하고 받아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담임교사가 방과후에 집중적으로 지도만 한다면 저능아를 제외하고는 해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한글 해득 지도자료로는 어떤것이 있으며 구체적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 1996학년도 도내 인문계 고등학교 농업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진학을 및 분야별 취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 1995년도, 1996년도 도내 수능응시자의 평균 점수와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의 순위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번째, 최근 3년간 도내 고교 졸업생이

도내 대학 진학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만재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세분 위원님들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박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교육감 김영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

'97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충북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있다시피 현재 국가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에 처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경제를 다시 회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다시 살리는 데는 너나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힘을 합쳐 힘차게 추진하는 것만이 해결의 근본임을 인식하고 본도에서는 중요시책으로 추진중인 실천위주의 체험적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확대하고 학생 스스로 바뀌쓰기를 실천하며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이해시켜서 건전한 소비생활 태도를 길러주며 기본 생활습관과 환경사랑을 생활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쓰레기 아가모운동을 전도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마음과 각오로 모든 교직원은 사치와 낭비를 없애고 검소한 생활로 주민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며 행정에서도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침으로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20%, 학교운영비 5%, 기관 행정경비는 10%이상 절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 중·고등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써 비행 청소년을 감소시키고 학교 폭력 추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도 탈락생의 재편입학을 허용하여 413명을 희망학교에서 수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생활지도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다시 탈락하는 일이 없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12월 개정노동법 파동이 편승하여 일부 교원들이 전국 교사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현직 교사가 전교조에 참여하여 지부장에 선출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 바 본인은 선량한 다수의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수요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참여 교사에 대하여 단호하게 입법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간의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첨단 기자재의 효율적 운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실 개혁 및 교단선진화 사업을 보다 충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12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에서 쉽게 가르치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목적으로 교육연구원에 교단 선진화 지원관을 설치하여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게 함으로써 교수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모든 교직원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근무지의 자세에 해이하지 않고 근무에 충실하도록 복무 기강을 확립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부당 금품수수 근절 자정 운동을 자발적으로 추진하여

[제75회-제2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교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원만히 추진되고 정착되기 위하여는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교육가족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며 교육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하신 심도있는 질문에 대하여는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받아 들여 교육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중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이 답변을 드리고 다른 사항은 보다 심도있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정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교육부의 '97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에 대비한 충북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는, 조일환위원님의 질문과 함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자치제 실시이후 자율성 확대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개혁의 조기 현장 착근을 유도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의 평가결과는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 중·고등학교 선택권 부여 등 5개 과제가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교육정책 분야의 경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를 들 수 있으나 대부분의 평가과제가 예산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충분한 재정지원 부족을 첫번째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우리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하였고 평가의 주도 면밀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도 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97년도 평가의 중점내용은 교실수업의 변화 노력, 수요자 중심의 학교체제 구축 등 5개 부문, 20개 과제, 119개 항목으로 평가의 영역과 내용이 매우 포괄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과제별 평가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취약 분야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통하여 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린교육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의 확산과 내실화를 도모하고 사립학교를 포함한 학교운영위원회 확대 설치를 유도하며 사회교육 활성화 및 농촌지역 거점 우수 학교에 대한 특별지원,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한 멀티미디어실 설치 및 퍼스널 컴퓨터 추가 보급,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운영평가 내용을 교육부 평가

와 연계시킴으로써 평가에 대비함은 물론 각급학교의 평가 부담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측정에 대비하여 학부모·학생들에게 언론매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중복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널리 알림으로써 이들의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평가위원들의 학교 현장 방문평가에 대비 장학협의와 각종 회의를 통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평소 추진하는 우리의 시책과 사업이 누락되거나 평가위원들에게 잘못 이해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면보고서 작성 및 심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대부분의 평가항목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교육재정이 열악한 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으나, 평가결과가 중복교육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평가 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방과후 수익자 부담 특별교육에 있어 일부 교원을 강사로 배치함에 따라 교원간 형평성의 논란이 있는데 강사수급 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방과후 교육활동 과목설정은 학부모, 학생들의 요구에 의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강사배정은 학교장이 교내 강사와 외래강사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교내강사는 해당과목에 대한 기능과 지도

기술이 우수한 교사를 배정하고 교내 강사로 지도할 수 없는 과목에 한하여 외래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다수 교원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해야 하는데, 앞으로 학교별로 학생의 흥미와 소질을 세분하고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다수 교원이 참여토록 조정하여 나가겠습니다만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번째로 방과후 특별활동에서 수요자 부담을 강사로 이외에는 과실금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재정관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방과후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학교는 강사로 결정과 수강료 징수액을 이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며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집행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후원회를 조직하여 이 후원회에서 적정액을 징수 집행토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강료와 강사로 이외에는 지출되지 않도록하고 방과후 교육활동에 따른 부교재 알선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

[제75회-제2차]

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특별활동 과목이 예능 부분에 치우쳐 있는데 과목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는 먼저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을 초·중·고등학교별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영어, 수학, 글짓기, 바이올린, 컴퓨터, 미술 등이며, 중학교는 영어, 수학, 과학, 국어, 한자, 미술, 수영 등이고,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수학, 국어, 과학, 한문, 부기, 컴퓨터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은 학생의 흥미와 소질을 바탕으로 하고 교사의 지도 능력,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부서를 설정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사수가 적어서 다양한 부서를 지도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97년부터 인근 소규모 학교가 협력하여 특별활동을 운영하도록 하여 과목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과목을 확대 운용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질문하신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자치단체 전입금 확보실태와 앞으로의 전입금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전입금은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분류되는데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

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세의 2.6%를 전입받는 것으로 '96년도 38억 4,000만원, '97년도 41억원을 전입받았으며, 이 전입받은 내용은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전입을 받고 금년도분도 벌써 전입을 받았습니다.

이 협조사항은 충청북도가 전입을 잘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도 어느 도에서는 작년 것을 전입 못받은 곳도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94년도 6,400만원, '95년도 1억 9,900만원, '96년도 2억 9,600만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관계법령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학교급식법,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등이 있으나, 위 법령중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의 경우 제3조 제3항에 당해년도의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는 시·도지사가 보조사업을 승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충북의 경우 11개 시·군중에서 청주와 충주를 제외한 9개 시·군이 이 규정에 제한을 받고 있어 시·군에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자 하여도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위 규정의 개정·보완을 위하여 상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관련 부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현재까지 개정

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인 청주시내 학교급식시설비 확보를 위하여 김정길위원께서 청주시와 협의 노력하시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 위원께서도 해당 시·군과 협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도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지방자치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구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조일환위원께서 교단선진화 사업 추진에 있어 물품단가입찰 제도의 성과 및 보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은 본도의 특색사업으로 21세기를 대비한 현대적 기자재를 갖춘 교실을 만들어 도·농 간의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급 학교에서 심화가르치고 즐거움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인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 시행 첫해인 '96년에는 50억을 투자하여 첨단 기자재를 구입토록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멀티미디어 교실 설치, 영어 교육 어학실습기 등 첨단 기자재 확보 및 교단선진화를 위해 127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본인의 임기 4년동안 교실 환경을 쇄신하고자 합니다.

단가입찰에 있어서는 지난해 예산 50억원 중 각급학교의 요구를 받아 집행한 바 기예산액 33억 6,300만원에 대하여 단가입찰을 실시한 바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이 74%로서 13억 2,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교구구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서는 첫번째로 단가입찰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가라고 물으셨는데 이 제도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속 보완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두번째로 단가입찰을 실시함으로써 물품구매 기간이 지연되어 적기에 교육현장에 활용할 수 없는 역기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시 첫해인 '96년도에는 지연된 것이 사실이나 금년에는 작년 초부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가급적 1학기 중에 완료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 단가입찰이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을 침해하였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도에서는 학교의 기본 경비는 전액 학교로 배정하여 학교장 책임하에 계획을 수립 집행토록 하여 학교 운영에 여러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본 교단선진화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학교장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해에 단가입찰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제75회-제2차]

타시·도와 같이 학교장들이 교재구입에 따른 잡음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가입찰을 실시함으로써 학교장을 보호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인의 임기동안 중단없이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외에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앞에서 위원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다 심도있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초등교육국장 조성근입니다.

김정길위원님께서 아홉번째 질문하신 특별상여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대상 선정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의 특별상여수당 지급은 공무원수당규정에 근거한 교육공무원특별상여수당

지급지침 교육부 예규 제240호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방법은 각급 기관별로 근무성적 평정 상위 60%를 대상으로 특별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점수자 20%를 선정한 후 기간별로 구성된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 10%를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기준 설정이나 절차와 방법 등을 각 기관장 재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교원의 근무성적 노출, 특별실적 평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 설정의 곤란, 학교급별·교원종별·기관별 지급대상자 선정의 불균형 등으로 일부 교사들의 불만의 소리도 있으나 이러한 불만의 소리는 규정상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기 보다는 특별상여수당 지급의 근본 취지나 절차 방법 등을 철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된 것으로 직원들에게 특별상여수당 지급 취지와 절차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각 기관별로 특별실적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자체 심사기준을 객관적으로 규정하여 공정한 선정 절차를 거쳐 처리되도록 지도 관리함으로써 특별상여수당 지급업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질문하신 학교의 재생 폐품류 수집 처리에 관한 질문은 중등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중 아가모운동 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가모운동은 쓰레기를 잘 처리함으로써 우리의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우리 교육청의 특수 시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는 아끼자의 머리말로 소비절약 생활을 통하여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이며, “가”는 가르자의 머리말 글자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자원화 할 것을 뜻하고, “모으자”의 머리글자인 “모”는 분리수거한 쓰레기를 되살려 쓰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가모운동의 “아끼자”, “가르자”, “모으자”는 그 자체가 경제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모 운동의 추진계획이 발표된 후 사회 각계에서 또 유관기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소비절약 생활과 폐품 재활용, 저축 지도 등 경제교육이 충실히 이루어 지고 생활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운동이며 본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질문하신 초등학교 영어 교육용 TV 보급에 차질이 발생한 원인과 물품 구매 행정의 효과적인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위해 당초 본도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전 교실에 29인치이상 TV

를 보급하기 위해 예산 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던 중 '97년 1월 24일 교육부에서 각급 학교에 43인치이상의 프로젝션 TV와 586펜티엄급 컴퓨터, 엔코더 등의 멀티미디어 체제를 구축하여 교단선진화 확대 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초 계획대로 29인치 TV를 확보할 경우 예산낭비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97년 2월초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43인치 프로젝션 TV를 2월말까지 보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그 결과 2월 28일까지 2개 시·군에서 43인치 프로젝션 TV를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시·군에서는 업자 제시 가격이 내정 가격과 맞지 않아 다소 지연된 바 있으나 '97년 4월 3일 입찰해서 4월 20일까지 전 초등학교에 보급하기로 약속을 완료하였습니다.

43인치 텔레비가 보급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그동안 29인치, 또는 43인치 TV를 3학년 전 교실에 설치하여 영어지도에 활용하고 있으며 어학실습기는 전량 보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품구매 행정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는 예산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학교장이 적정한 물품을 적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일환위원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제75회-제2차]

교육개혁 평가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전국 1위로 평가받은 내용과 명예교사나 유급 교사를 초빙하여 실비로 희망 학생을 공교육으로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또 취학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립유치원의 증설계획과 취원을 높이는 방안과 종일반 운영계획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전국 시·도평가에서 전국 1위로 평가받은 것은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과 중·고등학교의 자율보충학습을 포함한 교육활동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은 각학교에서 지역실정과 학부모, 학생의 요구,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96. 평가 당시 초·중·고 469개교가 모두 방과후 체육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참여 학생수는 약 13만명으로 전체 학생의 50%입니다.

과정 수는 외국어, 컴퓨터, 체육, 음악, 미술 등 총 2,277과정이었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작년 한해동안 약 600억원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의 평가는 서류평가와 학교 방문평가를 실시하여 우리 도가 전국에서 제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교외 과외를 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흡수하여 다수 학생에게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현직교사, 자원인사, 명예교사 등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다양한 과정을 설치하며, 농촌의 소규모 학교는 인근 학교끼리 협력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수 학생이 원하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취학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립유치원의 증설계획과 취원율을 높이는 방안, 종일반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의 전체 유치원 취원율은 '96년도 49.1%, '97년도는 49.4%로 전국의 취원율 44.8%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취원율 제고에 전력하여 '98년 취입율을 약 56%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을 증설하고 시설이 좋은 원사를 신축해야 할 것이며 부모가 요구하는 종일반 운영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립유치원의 증설 계획은 '96년에 6개원의 독립원사 신축과 '97년에는 13개원을 신축할 계획이고 28개 학급을 증설하였습니다.

종일반 운영은 금년부터 도내 255개 모든 유치원에 학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장제, 종일제를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240개원에서 312학급이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학급의 82.5%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질의하신 자생적 교과연구회의 조직과 지원현황 및 수업연구 등 연구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등 교원의 연구풍토 조성과 전문성을 높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생 조직을 바탕으로 한 교과별연구회와 범교과연구회를 도교육청 단위와 지역교육청별로 육성해 왔습니다.

'96년도에는 본청에서 20개 연구회에 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역교육청에서는 총 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7년에는 자율연구회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초·중등 교원의 자율연구회를 29개로 확대하여 교사들에게 참여기회의 폭을 넓히고 연구회 지원비 3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구회 성과를 높이기 위한 여름 세미나나 공개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연구 개발된 우수 자료를 각급학교에 보급 활용토록 하며 또한 교수 학습방법 개선을 위해 수업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 5월중에 지역교육청별로 수업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수업 기술이 우수한 교사를 추천받아 7월중에 학교를 방문 평가하여 우수한 교사는 연구 실적점을 인정하는

교육감상을 시상하여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수업연구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우수한 수업 장면을 녹화하여 각학교에 보급하고 에듀넷에 탑재하여 연수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은 수업연구발표대회를 '95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수업평가방법은 수업계획, 수업참관, 연간학습 지도안을 평가하여 120명에게 연구실적점을 인정하는 교육감상을 시상 수업 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우수한 수업안은 장학자료로 발간 교수 학습 개선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하여 자생적 연구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만재위원께서 질문하신 농진지역 근무교사들의 주민등록 이전에 관한 문제와 농진지역 근무교사의 거주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진지역 근무교사들의 주민등록 이전 상황을 보면 농진지역 학교 근무교사는 총 1,843명으로 학교가 소재한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교사는 69.4%인 1,279명이고, 이전이 되지 않은 교사는 30.6%인 564명으로 거의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농진지역 근무교사 주민등록 이전 폐지 건의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14일, 15일 이틀간 열린 초·중

[제75회-제2차]

등 인사담당장학관 회의에서 다시 건의토록 하는 한편 교육감님들의 수차례 회의시 협의가 반영되어 '96년 12월 30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령안입니다. 가산점 평정대상은 현행과 같이 하되 평정대상의 범위결정, 대상별 평정점 등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정하도록 입법예고하였으며, 교육부에서는 '97년 1월 14일 전국 초·중등 인사담당장학관 회의를 개최하여 입법예고 중이던 승진규정개정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승진규정이 개정령의 원안대로 개정 공포된다면 해결될 전망에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문하신 '95. '96년도 교직원 및 고교생의 해외연수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연수실적은 '95년에는 교원 326명, 일반직 30명으로 356명이고, '96년도에는 교원 508명, 일반직 30명으로 538명이 국외연수를 하였으며, 고교생의 연수실적은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고교생의 국외여행은 개인적으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교직원의 국외연수 과정과 기간 및 연수 방문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연수 성과로는 국제적 감각과 견문을 넓히고 세계 여러나라의 교육정보를 획득하여 교직 전문성을 신장시켰으며, 특히

외국어 현장연수는 현지 대학교와 연계하여 실생활을 중심으로 현지 언어를 보다 정확히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외연수에 대하여는 학교현장에서 국제화 교육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질문하신 도내 초등학교 4학년이상 재학생중 한글 미해득자의 구체적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4학년이상 학생중 한글 미해득자 수는 '96년 10월 1일 현재 484명이며 그간 학교장과 담임의 책임지도를 통하여 190명이 구제되어 '97년 2월 20일 현재 294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1,2학년에서부터 한글을 완전히 해득시키고자 개인별로 구체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담임책임제와 학교장 책임제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한글 미해득자는 담임선생님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구제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글 미해득자 지도를 위한 자료로는 본도의 국어과 교육연구회에서 개발한 받아쓰기 급수제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한글 미해득자를 진단하는 도구로 그리고 지도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자료입니다.

1학년의 경우 1급에서 53급까지, 2학년의

경우는 1급에서 43급까지 급수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4,5,6학년 학생중 아직도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고 있는 294명에 대하여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완전 구제될 때까지 담임, 또는 학교장 책임하에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초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중등교육국장 송대현입니다.

세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중등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김정길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재입학한 학생의 지도 대책과 재입학 학생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을 시에 대책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재입학한 학생에 대한 지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입학 학생의 지도대책으로 중도탈락생들

의 재편입학을 추진하면서 입학후의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재편입 학생과 일반학생과의 연령차로 인하여 급우들 간의 이질감에서 오는 불화문제, 소영웅주의적 행동에 따른 위화감 조성문제, 청소년 범죄의 다양성과 행동양식에 대한 사전 지식 제공문제, 문제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생활지도 문제 등 24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지도대책을 지난 '97년 2월 16일 각급 학교에 제시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학교별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특별지도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시행조치로 지난 3월 19일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5대 시책과제를 선정 학교별로 적극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 첫째 대중문화 수요를 위한 특활반 조직운영으로 또래문화를 형성하여 즐거운 학교풍토를 조성하도록 하였고, 둘째, 학생 징계제도를 '97년 7월 30일까지 선도형으로 개선하여 금년 2학기부터는 퇴학제도를 없애고 선도처분으로 개선 학생 선도를 위하여 교육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셋째, 전·편입학 제도를 개선하여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중퇴생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의 학생으로 전입학시켜 교육환경을 바꾸어 주겠으며, 넷째, 중퇴생 및 문제학생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이들과 교사 및 사회지원 인사들과의 대리부모 되어주기 결연을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제75회-제2차]

선도하겠습니다.

다섯째, 중퇴생들에 대한 학교 복귀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선도하겠으며 학교 복귀자의 재탈락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재입학자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을 때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재입학한 학생은 중학교 115명, 고등학교 298명 등 413명으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고, 이들에 대하여는 본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선도 자율활동을 통하여 친구되어주기운동, 또래 상담을 통한 우정의 대화나누기 운동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또다시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제학생에 대하여도 학교장이 교육상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타교로의 전·편입학을 추진한 학생에 대하여는 중퇴생대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편입학시킴으로써 탈락자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도저히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된 선도형 징계에서도 종전의 퇴학에 해당되는 선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학교장은 학부모와 진로를 상담 알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4월 말경에 이미 재입학한 413명 학생들의 생활문제에 대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분석·검토한 후 재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섯번째로 김정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선학교의 수학여행이 교육청의 지침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학년도 수학여행에 대하여는 '97년도 생활지도 기본계획, 생활지도 주임회의 및 고교감·지역교육청 담당장학사회의에서 목적지를 제주도, 설악산, 경주 등의 지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전국의 문화유적지 등으로 다변화하여 야영답사식, 소규모 분산 실시로 교육적 의의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권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여행은 학교장이 방법 시기를 결정하는 학교교육 행사이므로 각급학교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제주도나 설악산, 동해안 등으로 거의 결정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학여행지 선정 및 방법 개선에 대하여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수학여행이 교육적 의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지도하고 경비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수학여행에 학부모 대표가 참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

다.

김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열번째 항목에 환경과목 선택의 확대와 전문교사 양성을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190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58%에 달하는 110개교가 환경과목을 선택하고 있으며, '96학년도에는 총 15개 학교만이 환경과목을 선택 운영했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교과목 선택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 증감이 예상되며 시대의 중요성을 감안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환경과목의 선택 운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택과목으로서는 환경과 컴퓨터와 한문, 그 세가지 교과중에서 해당 학교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환경과 인문고의 환경과학은 가치관 함양이 주된 내용이므로 교육과정상 지도가 가능한 과학, 사회, 실업교과 등 관련 교과 교사가 지도하고 실업계열의 선택과목인 환경기술, 환경보존, 환경실습의 환경부 전공을 받은 14명의 전문교사가 지도하고 있으며, '97학년도에도 7명의 농업계 교사가 부전공 연수 예정자로 계획되어 있어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환경부전공 연수를 점차 확대하여 부전공 환경과목 교사들을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다음으로 열한번째 김정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의 재생폐품류 수집확대와 처리의 체계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환경, 경제 살리기 실천운동으로 쓰레기 아가모 운동을 특색사업으로 설정 아껴쓰기를 실천함으로써 절약태도를 기르고 환경오염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시켜 쓰레기를 바르게 가려내고 처리함으로써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구현함에 있어 본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가모 운동이 정착되려면 학교가 재생폐품류의 수집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처리도 체계화 해야 한다는 김정길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학교의 재생폐품류 수집확대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학급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 쓰레기 가려내는 방법 및 폐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도하며, 사랑의 주머니를 제작 도내 전학교에 배부하여 소풍, 현장학습, 자연보호활동에 지참 활용 폐휴지를 수거하고 지역이나 학교 실정을 고려한 폐품재활용 특설시간을 운영, 교내 여건 조성으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처리의 체계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버려진 재활용품은 각학교에서 수거하여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지역은 한국자원재생공사 청원사업소에, 제천시, 단양군은 제천시

[제75회-제2차]

업소에, 충주시 음성군은 충주사업소에, 옥천군 영동군은 옥천사업소에, 괴산군, 증평, 진천군은 진천사업소에 연락을 하면 가져가고 있습니다.

단, 재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한차분이 되지 않으면 차량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고 청원군 재생공사 차량은 2.5톤과 5톤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분량을 수집 보관하는 데에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재생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별로도 연합을 해서 분량은 학교별로 작지만은 연합을 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길위원님이 열두번째 질문하신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대책과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국고 3,343만 5천 원, 자체예산 7,729만 천원, 계 1억 1,072만 6천원으로 비급식학교 아동 초등 121명, 중등 230명, 계 351명에게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급식학교 1,649명과 일부 중학교의 극빈 학생 53명, 고등학교 21명은 교내 불우이웃돕기 운동 및 사회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지원 결식아동들이 대부분이 초·중급식 학교 재학생으로서 이들 학생들에 대한 중식 해결을 위하여 각급 기관에서 모금하는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대한 협조에 우선하여 각급 학교별 자체 결식아동들을 위한 돕기운동을 실시 지원토록 하겠으며, 동시에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해결토록 하는 등 결식아동 해소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사회단체로부터 지원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주 한벌로타리클럽 회장 최명자, 제천검찰지청, 괴산군수 등으로부터 111명에 대한 지원이 당해 학교로 답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정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중등국 소관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조일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조일환위원님의 질문요지는 본도 초·중·고생의 체격과 체력이 전국기준과 대비 분포를 설명하시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음식문화, 즉 단백질, 지방질, 당질의 학생들의 과다섭취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키와 몸무게 등 체격은 향상되었으나 윗몸일으키기, 오래달리기 등 체력은 신체의 활동기피로 인하여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도 초·중·고생의 체격과 체력의 전국기준과의 대비 분포 현황

은 표본학교 표본 체력검사 결과 대비로서 체격에서 등 키, 몸무게, 가슴둘레, 앉은키, 또한 체력에서는 100미터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턱걸이, 팔굽혀펴기, 팔굽혀 매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던지기, 오래달리기 등이 있으며, 이들 각각에 대하여 초·중·고별, 학년별 대비자료가 매우 방대합니다.

자료는 전부 통계를 뽑았습니다만 매우 방대해서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일환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질문하신 두번째 현재 교육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1교 1종목, 1인 1기운동 및 중간체조로는 체력 보완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체력보강의 모범적 교육현장이 있으면 공개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도의 체력보완 대책으로는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만은 1인 1운동 및 과외 체육활성화로 신체활동을 강화시키고 전교생이 참여하는 중간체조 연중 실천으로 균형있는 체력을 유지하며 학교를 축으로 2km 이내의 거주 학생은 도보로 등교할 것을 지도하며 여가를 이용하여 취미에 맞는 운동을 실천하도록 하고 각급학교에서 체력단련실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서 각종 운동기구를 비치, 근력을 키우며 식생활 습관 개선으로 표준 10단계의 실천 등 종합적인 체력보완 대책이

필요하며 이미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97학년도 체육활동 계획으로 일선학교에 시달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체력보강에 모범적 교육현장을 질문하셨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정상적인 체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력단련실을 구비 각종 운동기구를 설치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학교로는 충북체육고등학교를 들 수 있습니다.

보다 강인한 체력을 기를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일환위원님께서는 그 한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정만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개장기간 연간 약 2개월 이외의 기간, 비개장기간에 대한 직원의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 충주수영장에는 행정직 1명, 기계원 1명, 조무원 2명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지침상의 정원 5명보다는 적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수영장은 실내 실외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중 실내수영장을 개장하여 초·중·고 수영선수 및 충북 체육고 학생들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주, 충주수영장의 근무자가 비개

[제75회-제2차]

장기간에 하는 업무는 행정업무수행, 기계실 변전실 등의 설비 관리, 수영장 내·외부 시설 관리 및 당직근무 등으로서 상기 2개 수영장의 근무인원은 시설관리와 개장을 대비한 최소 인원으로 타기관으로 배치 활용하는 것은 현재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수영장이 '96년 6월 개장됨으로서 개장후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개장후 1년간의 운영관리 실태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면밀히 분석하는 등 인력진단을 통해 잉여인원이 발생할 경우 인근 교육기관에 업무를 업조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만재위원님이 여덟번째 질문해 주신 도내 인문고 농고, 공고, 상고 학생에 대한 진학을 및 취업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진학을, 우선 진학을 말씀을 드리면 일 반계 고교는 1만 1,430명 졸업생중 83.5%인 9,551명이 진학했고 실업계 고교는 만 199명 졸업생중 32.4%인 3,305명이 진학하여 총 2만 1,638명 졸업생 가운데 59.4%인 만 2,856명이 진학하여 지난해 만 1,522명보다 1,334명이 더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총 1만 199명 졸업생중 6,174명이 취업을 희망하여 취업희망자중 97.5%인 6,02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분야별 취업현황으로서는 농업계가 졸업자

1,159명중 취업희망자 730명, 취업확정자 683명으로 93.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업계는 졸업생수 4,357명중 취업희망자 2,330명, 취업확정자 2,304명으로 98.88%를 취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업계는 4,683명 졸업자중 취업희망자 3,114명 가운데 3,033명이 취업확정이 되어서 97.4%의 취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만재위원님께서 아홉번째 질문하신 도내 수능응시자의 평균점수와 타시·도와의 비교 때에 우리 본도의 순위가 어떠한가? '95년, '96년 대비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점 만점이었던 '95년도에는 2만 2,589명의 충북 출신 응시자의 평균이 88.66점으로 전국 평균 92.12점에 비해 3.46점이 낮았습니다.

400점 만점으로 바뀐 '96년도에는 2만 2,777명의 충북 출신 응시자 평균이 163.65점으로 전국 평균 170.73점에 비해 7.08점이 낮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타시·도와의 비교 순위는 교육부에서 시·도별 평균점수를 발표하지 않아 비교해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비공식 통계입니다만은 이웃인 충남도가, 충청남도가 155.08점으로 우리도가 충남도에 비해서는 8.57점이 높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만재위원님 열번째 질문하신 도내 고교 졸업생의 도내 대학 진학현황, 최근 3년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94년도 자료는 지금 없어서 통계가 불가능해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95년도, '96년도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우리 도내에 진학 현황이 6,798명이 도내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4년제 대학에 4,045명이 진학했고 전문대학에 3,724명이 진학해서 7,769명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세분 교육위원님 들의 질의에 대해서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중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계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먼저 김정길위원님께서 여덟번째 질문하신 '96년도 예·결산에서 세입결손이 발생한 원인과 규모 및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결산에 있어서 교육세를 재원

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이 정부의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예산액 대비 8.5%인 110억 3천만원이 미수납되었고, 괴산군에서 장학재단설립을 통하여 괴산고등학교 생활관 신축비를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장학재단 설립 지연으로 괴산군으로부터 지정기부금 1억 5천만원이 미수납되는 등 총 111억 8천만원이 미수납되었으나 재산수입 7억 1천만원, 예금이자수입 5억 1천만원, 잡수입 1억 6천만원, 선도학교 설립지원 전입금 2억원 등 17억 5천만원이 초과 수입되어서 예산액 대비 94억 3천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도에서는 '96년도에 교육세 징수 추세로 보아 양여금 세입결손이 예상이 되어서 '96년 2회 추경시 65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을 160억원으로 하향 편성하는 등 자체적인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사업 투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체재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입결손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조일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둘째번으로 질의하신 '95년도와 '96년도의 기부금품 접수현황과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 기부금품 접수 총액은

[제75회-제2차]

'95년도 18억 7,609만 7천원, '96년도 23억 9,760만 8천원으로 '95년도 대비 5억 2,151만 천원이 증가하였으며, '96년도 접수내역은 현금 15억 3,268만원, 물품 6억 5,920만 7천원, 시설 2억 572만 천원입니다.

학교의 기부금품은 각급학교 기부금품접수 관리 요령에 의하여 순수한 자발적인 기부금품에 한하여 접수하고 모금, 할당, 직·간접적인 강요, 권유, 유도에 의한 기부금품이나 특별학생의 편애를 기대하는 기부금품, 기부자 명의 공개를 요구하는 학부모의 기부금품 등 부당한 기부금품은 일제 접수할 수 없도록 하고 현재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기부금품 접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 및 지역교육청에 부당기부금품 접수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장학협의회시 현지도도를 강화하고 암행감찰, 언론 및 여론 수립수집에 의한 현지 확인 감사 등 지도감독 및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기부금품 관련자에 대하여는 징계, 인사조치 등의 신분상 조치는 물론 기 접수한 부당기부금품을 변상 또는 반환하도록 개정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나 학급운영비를 빙자하여 할당, 권유, 유도등 부당한 방법으로 학부모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토록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회의 또는 공문으로 수차에 걸쳐 강조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감사활동 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조위원님께서 세째번으로 질문하신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공공 건축물은 준공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신설학교의 준공된 개교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 준공전 개교와 관련하여 시정이나 기타 행정적 조치 및 감사에 지적된 사례 여부와 개교일 조정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의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완료하기 위하여는 학교 신설 소요예산을 개교 2년전 시·도 당초예산에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신설학교 확정 및 국고교부금 교부시기가 조정되어야 하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신설학교 경비를 교육부에서 개교 전년도 예산으로 교부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개교 1년전 당초 예산에 편성 집행하고 있어 공사 착공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본도 교육청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개교 전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여 설계 시기를 4개월정도 앞당기고 있으나 개교시까지 공사완공이 촉박한 실정으로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신입생 수용시설을 부분 준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전의 개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

면, 대개 36학급 규모의 신설학교의 경우 약 12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나, 착공이 후 우기 및 동계를 제외하면 실제 공사가능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마감공사의 경우는 개교 직전까지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준공검사를 마친후 개교를 함이 타당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개교전에 관계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생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 소방등 각종 분야의 점검을 철저히 한후 개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행히 교육부에서도 신설학교의 공기기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현재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준공전 개교와 관련하여 시정이나 행정적 조치 및 감사에 지적된 사례는 없습니다.

신설학교의 개교의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월 또는 5월 학기 중간에 개교할 경우 초등학교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입주된 학생들을 기존 학교에 수용할 수 밖에 없어서 학생 통학 불편과 이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고 학생 전입학으로 인한 학급 재편성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며 학급 재편성으로 증원되는 교원 정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학기 중간 교원 인사이동에 따른 담임재배정 등 인사의 혼란이 초래되고, 특히 청주시내 고등학교의 경우 신입생은 연합선발고사 합격자 중 추천에 의하여 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에

학년초 개교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신설학교의 개교를 며칠정도 조정할 수는 있으나 학기 중간인 4월 또는 5월 개교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학생수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3월초에 개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환위원님께서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교동초등학교 강당 신축에 있어서 착공 지연, 예산 및 면적 감축,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부결사유와 유사한 사안 발생시 교육위원회 통보 용의 및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교동초등학교 강당신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95년 12월 13일 교육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청주시교육청에서 '96년 1월 9일 도로상에 건축할 수 있는지를 청주시장에게 질의하고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후에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재검토되는 등으로 지연되다가 '96년 7월 22일 통과되어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으로 '96년 9월 24일 상정되어 재검토 보류되었다가 '96년 12월 6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민의 조망권, 생활환경, 보행자의 안전보호 등의 사유로 부결 통보됨에 따라 청주교육청에서는 즉시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여 긴급 입찰로 '96년 10월 28일

계약을 체결해서 '96년 12월 30일 착공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위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심의 과정이 1년여 기간이 소요되어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은 승인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같이 용암중학교와 교동초등학교가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양쪽 학교 교사 사이의 도로 상단에 건축면적 약 250평의 농구 및 배구가 가능하고 관람석까지 계획된 강당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이 부결되어 부득이 위치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치변경 과정에서 운동장 점유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 정문 옆에 건축면적 137평으로 면적을 축소하여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동초등학교의 강당신축은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사항이 차후 변경된 것으로 청주시 교육위원인 김정길위원님께서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진행사항을 말씀드렸고 또한 도도시계획위원회에 부결될 때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히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안건이 통과되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셨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치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행정처리에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만재 교육위원님께서 세째번으로 질의하신 시설공사의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학교를 신설하기 위하여는 아까 조일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올린 바와 같이 학교신설을 포함한 학생수용계획을 당해 학년도 개시 22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에서는 이를 관계부처와 협의 검토한 후 신설 학교를 확정 이에 소요되는 교부금을 개교 전년도 예산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신설학교 경비를 학교 설립계획에 의거 개교 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1월에 설계용역 품의를 시작으로 설계용역, 입찰, 설계, 토지매입, 공사입찰, 공사계약체결 등 제과정을 거친 후 8월말에 시설공사를 착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공사기간이 짧아 개교시까지 전체 공사완공이 불가능함은 물론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본도 교육청에서는 공사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개교 전전년도에 예산에 자체재원으로 설계용역비를 계

상하여 설계시기를 약 4개월정도는 앞당기고는 있습니다만은 개교시까지 공사완공은 촉박한 실정입니다.

학년당 10학급 규모의 학교를 신설할 경우 설계용역품의에서부터 입찰, 설계 및 검토까지 200일, 시설공사품의에서부터 입찰, 계약 체결 착공까지 40일, 공사착공에서 준공까지 330일, 계 570일, 약 1년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설학교의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여 견실한 시공으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는 교육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해 수립되는 학생수용계획을 현행 당해 학년도 개시 22개월 전을 최소한 34개월 전으로 개정하여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개교 2년전 시·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국고교부금 교부시기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교육부등 중앙부처에서 조정해야 할 사항으로 교육부에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현재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위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1990년 이후 건축한 건물의 하자보수현황 및 소요경비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자보수 현황은 '90년도부터 '96년도말까지 총 공사계약 건수는 4,621건으로 그중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보수한 현황은 96건이고 보증기간 경과후 보수한 현황은 6건에 1억 1,097만 3천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충분한 예산 및 공사기간 확보와 설계검토의 철저로 사전에 하자원인을 제공 하겠으며 공사감독과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 본청에서는 견실시공 점검반을 편성 운영중에 있으며 준공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의 교체 및 복수검사로 검사 업무를 강화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정만재위원님께서 여섯번째로 질의하신 송계초등학교 및 한수중학교의 통합학교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교원 시설 설비의 공동활용을 통한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송계초등학교와 한수중학교 통합운영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육법 제85조2, 교육법시행령 제60조의2에 초·중등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계초등학교와 한수중학교는 '98년 3월 1일 통합예정으로 기존의 송계초등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17억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보통교실 19실, 다목적교실 3실, 화장실 4동, 기타 부대시설 2동을 건축하여 초등학교 6학급, 중학교 3학급을 수용할 계획이

며, 통합학교 명칭은 제천교육장으로 하여금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공사기간중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송계초등학교 및 한수중학교 수용시설을 일부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의장 박재현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9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계속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 의장 박재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정길위원님께서부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김정길 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본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님에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 세가지 정도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가 열한번째 본 위원님이 질의한 아가모운동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님이 알기로는 학기초가 되면은 그 학교에 필요한 소모품을 서무과에서 전부 체크를 해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결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에 지금 우리 청주시를 예를 든다면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서무과에서 소모품 명세서를 가지고 오면은 일일이 교장선생님이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빗자루는 쓸만하다”, “이 바케스는 쓸만하다.”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교장선생님이 구매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 학교가 지금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렇게 교장선생님이 확인을 안하시고 그냥 필요하다는 소모품이 올라오면은 그대로 결재를 해가지고 산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쓰레기장에 가보면 쓸만한 바케스다, 주전자다, 빗자루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것을 저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가모운동을 교육청에서 벌이고 있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은 일선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 좀 들려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유팩같은 것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재생공장에 주면은 휴지나 이런 소모

품을 준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예산을 10% 절감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신다면은 예산액에 상당히 절감이 되고 또 아가모운동에도 호응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감님한테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열두번째 질의한 결식아동 해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식아동 해소를 위해서 불우학생들을 돕기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금운동을 전개를 한다면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학생들이 식사를 못하고 이런 도사락을 못싸오는 이런 학생들이 다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운동을 벌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추진을 한다 이러면은 본 위원도 여기에 적극 동참하여가지고 다만 몇십명이 됐더라도 몇십명이 되는 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길을 트는 그런 제가 의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보면 조금전에도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습시다만은 수재의연금이다. 불우학생 돕기운동이다. 뭐 이런 여러가지 학교에서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우들을 돕는 밥을 못먹고 배가 고파서 학생들을 돕는 이런 운동은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도 생각을 해봤습시다만은 저 혼자 참 부담하기가 너무 벅차고 또 여러가지 또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이런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셨다든지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제동력 장치를 한다 이러면은 저도 여기에 적극 동참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세번째 질의한 것입니다.

열세번째 질의한 것인데 텔레비 구매문제 말이죠. 그걸 제가 조금 전에도 행정질의에서 작년에 교육감님께서 단가입찰을 보셔가지고 상당한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도 초등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초등학교로 배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시다만은 똑같은 품목에 똑같은 물품인데 이것도 시기도 똑같고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어떤 규정이나 뭐 이런데 얽매이지 말고 단가입찰을 봐가지고 교육청에다가 배정만 해줬더라도 지금 한달 반이 지금 계약한지가 거의 다돼 가는데 지금까지 보급을 못하고 교육에 차질을 빚는 이런 일은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또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LG하고 삼성하고 두개 회사에서만 입찰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장난을 쳤어요. 제가 지금 11개 시·군교육청에서 그 납품한 가격을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20만원, 30만원도 차이나고 말이죠, 엄청나거든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이게 LG는 168만 9천원에 세군대를 땀습니다. 그 청원군교육청에서 159만 9천원에 봤습니다. 그리고 제천하고 청주에 168만 9천원에 두군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나머지 8개 시·군교육청에 말이죠, 이것은 말도 안되요. 가격이 163만 5천원에서부터 189만 9천원까지, 190만원에서 천원이 모자라죠? 이렇게 납품을 했다고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이것은 생산업체가 교육계를 완전 무시한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 회사 제품하고 LG하고 두군데 물품만 넣다 이러지만은 159만원하고 189만 9천원하고, 차라리 190만원 하든지, 약 30만원에 가까운 편차를 보이면서까지 납품을 했다 하는 것은 이 납품을 받아준 일선 교육장님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자기네들 집에 텔레비전 산다면은 이렇게 편차를 두고 사겠습니까?

이것은 적어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구매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교육청에다가 강력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4학년도 하고, 5학년도 하고, 6학년도 하고 그러면은

어차피 이런 텔레비를 구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꼭 입찰을 보라는, 이런 뭐 입찰을 보라는 규정이 있지만은 꼭 입찰을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런 것은.

가격을 수의계약을 하실 때도 사전에 가격 조율을 하든지, 입찰을 봤을 때 입찰 단가보다 높다든지 이러면은 수의계약을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도 입찰을 봐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일 처음에 입찰을 볼 때 청원군에서 159만 9천원에 입찰을 봤지 않습니까? 입찰을 보고 난 뒤에도 어떻게 된 것인지 190만원까지, 괴산은 입찰을 193만원에 봤습니다, 입찰을.

입찰을 193만원에 봐가지고 계약단계에서 깎아줘가지고 189만 9천원에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입찰을 무엇때문에 봅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입찰봐 놓고 또 비싸대면 깎아주고, 이런 파생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일선교육청에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교육감님께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단가입찰을 딱 보여가지고 시·군으로 배정을 해주시면은 참 작년처럼 그럼 빛이 나고 또 교육재정도 또 좀 충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감 김영세**

제가 답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 **김정길 위원**

예.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의장 박재현**

앉아서 하십시오.

● **교육감 김영세**

김정길위원님께서 참 심층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파악해서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아가모운동에 대한, 특히 공감을 하셔서 많이 권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상 우유팩 같은 것이 이렇게 폐기된다는 것이 우리가 현장감각이 어두웠다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재활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또 이 아가모운동은 사실상 우리가 정신계도 운동에도 들어가요. 오늘날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 졌느냐 하는 것은 결국 근검절약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 정신적으로 어린애들서부터 지금 일선 초등학교에 애들이 시계를 잃어버려서 수시로 이만큼 주워다 놓아도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데에 정신계도 운동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운동을 시작해 보니까 스티커와 썸을 만들어 주는데 그것을 일선학교에 이미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품같은 거 벌써 이미 사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일선학교에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학교운영비에서 쓰라 하니깐 안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별도 예산을 6천만원을 이 스티커 만드는데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썸 만드는데 4천 여만원이 들어가요.

별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도에서 직접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고서 사방 어떤 데 지원을 받아 볼까 했더니 자원재생공사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여기 호응을 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다. 또는 사실상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같은 데서는 500만원 찬조금을 가져왔어요. 앞으로 여기에 협조를 해줘서 얼마든지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그 500만원을 가지고 다시 지금 학교 교실에다가, 초등학교 교실에다가 수거함을 만들어 줍니다. 수거함을 만들어 줘서, 수거함 그 문에다가 아가모운동의 일환으로 표시를 해주고 충청북도교육청하고 이것은 재생공사 지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생공사 그 표제를 붙여 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앞으로 이 운동에 대해서 또 어떤 이 선전 효과도 가질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상표같은 거. 거기다 조금씩 넣어주고서 찬조금을 받는, 이런 방향으로 소위 호응

을 얻어내서 호응을 유인해서 전개하려는 이런 의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든 정착이 되어 된다. 또 우리가 이것을 일과성 운동으로 한번 제창하고 그만둘려면 참 그야말로 탁상공론 밖에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충청북도 교육의 새바람 운동으로 실천적인 인성교육에 어떤 산표본으로 이것을 내세우고자 하는 이런 의도에서 이것을 내세웠습니다.

끝까지 이것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 해소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같은 것을 구성해서 지원하자, 대단히 좋은 의견으로 우리가 수렴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각종 구호활동을 많이 전개하면서도 가까운데 것을 도와주자는 이런 성의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데 연말 불우이웃돕기에도 나는 우리 교육청도, 교육청 안에 누구 도와줄 사람 없느냐, 기능직이나 이런 저변에 딱한 사람 없느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우리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눈앞에 보이는 자기 친구서부터 도와주는 이런 미풍이 있어야 되겠다. 전 김위원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결식아동이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전량 100% 지급을 못하지만 대개가 지급 못하는 학교는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예요. 그래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기 때문에 급식위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애들 급식하는 찰나에 조금 더 보태서 그 애들좀 먹여다구, 이렇게 해서 사실상은 해결이 기본적인 것은 해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참가난은 나라도 못막는다고 도와주는 게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죠. 이 학생들한테, 요새 세상에 어떻게 하면 결식을 합니까, 그래서 이 도와주는 운동을 각별히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서 어떠한 특별추진 기구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대단히 좋은 의견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영어교육 텔레비 보급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게 사실상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실시하라 하면서도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이 거의 없었고 테이프 정도 보급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실시해 가면서 우리 모두가 염려했다시피 초등학교에 무슨 시설이 있느냐, 어떤 실습실, 기자재도 없이 영어교육을 실시한다는 데서 많은 우려를 자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최저단위로 바로 테이프용 녹음기 닥다이콤이라든지 이런 테이프용 녹음기 이것을 한학급에 하나씩만이라도 보급하자, 한학급에 하나씩만이라도 보급하자니까 그것도 우리 도내, 도내 초등학교 3학년이 603학급입니다.

603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녹음기 그 하나

줘도 또 무슨 소용있습니까? 한앞에 하나씩 다 가져야 할 건데, 그러니까 한앞에 하나씩 줘야 할 형편에 하나씩 줘도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개발한 것이 텔레비를 여기다 연결시켜가지고 그 한대를 활용해서 텔레비로 하여금 전체 학급에 확산하는 방안, 또 전문가들 견해도 초등학교 영어는 음향실습실 보다도 이 테이프용으로 족하다. 이게 전문가들 분석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를 사실은 한 23인치, 23인치로 확보토록 하게 하기 위해서 약 8억을 확보했던 거죠. 8억을 확보해서 그것을 23인치이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23인치이상으로 하면은 여러 회사에서 나옵니다.

여러 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인하되는 효과도 가져왔을런지 몰라요, 이편이.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교구설비 기준이 또 멀티미디어의 호환시설로 43인치 텔레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실에다 23인치를 넣고, 그 다음에 43인치를 넣으려면 이종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돈 부담을 조금 우리가 하더라도 예산이 더 들어가도 이 차나에 43인치로 하자. 그래서 이게 갑자기 수정을 했어요. 더 보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완을 해가지고 2월말까지는 이게 일선학교에 보급을 할려고 그랬더니 텔레비를 보완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녹

음기는 3월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텔레비도 이것을 도교육청 전체에서 그야말로 단가입찰을 보이느냐 하는 문제도 돼서 이것이 도교육청 실무진께서 협의를 한 끝에 이 초등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거다, 중학교도 해당이 안되고. 초등학교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라면은 지역교육청에다 줘서 거기서 단가입찰을 보이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래서 그 지역에서 교육장 위상을 보더라도 그 지역의 초등학교는 그 교육장이 관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지역교육청에다 나눠 준 것입니다.

나눠줬더니 제일 먼저 충주교육청에서 입찰을 봤는데 충주교육청에서 163만원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원가 조회를 했더니 이것은 원가가 180만원 대입니다.

180만원 대인데, LG하고 삼성이 경합이 붙어가지고 충주교육청에다가 163만원에 납품을 했어요, 낙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청원교육청인데 청원교육청에 와서 두 업체가 더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대번 159만원에 집어 넣었어요.

이러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출혈을 보게 됐다 이거야, 출혈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담합을 했어요. 담합을 해가지고 음성교육청에 입찰을 들어가게 됐다 이거예요. 음성교육청에 입찰 들어가니까 음성교육청에서는 이 원가가 185만원인가 얼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성교육청에서 그 기본 사양에 의한 예가를 조서만드는데 싹 거기에 낙찰선에 들어갔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청주시교육청이 이에 대처해야 되는데 청주시교육청은 우리 충북교육 대장이고 대수가 제일 많은 데 아닙니까? 뭐 40%가 청주교육청에서 입찰을 봐야 하는데 청주교육청은 청원교육청이 159만원에, 159단원에 낙찰된 게 있기 때문에 재빨리 이게 민첩하게 대처해서 예가를 159만원으로 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 159만원에 산정을 해서 하니까 유찰이 될 수밖에. 그랬는데 괴산교육청에서 이것을 대처를 소홀히 해가지고 193만원에 낙찰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외의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민감해서, 그래서 음성교육청하고 괴산교육청이 사실 나한테 질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이제 이것은 159만원, 163만원에 낙찰이 된 데가 있으니 이것은 예가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그래 예가를 인하해서 전부가 타시·군에서 전부 유찰이 된 겁니다.

지금 두군데만이, 음성하고 괴산하고가 이게 고가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나머지 구역은 이것이 두 업체뿐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담합을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저히 참말로 193만원 이하로는 못넣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업자들한테 우리가 욕박을 질렀어요. 그러면 좋다. 우리가 텔레비를 43인치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인하하겠다.

인치 수를. 43인치에서 38인치로 내리겠다. 그러면 어디가 들어오느냐면 대우가 들어옵니다. 대우가 들어오면 세업체가 들어오면은 이것은 당연히 입찰에서 문제가 옵니다. 입찰에서 문제가 오는데, 사실상 우리는 앞으로 멀티미디어에 호환을 하기 위해서는 43인치를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중이 돼요. 그래서 두업체를 불러다 놓고서 우리 인치를 인하시켜서 경합을 붙여서 재입찰을 할테니 그런줄 알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숙의끝에 원가가 이것이 꼭 원가가 189만원 이랍니다.

189만원인가 얼마 이하로 내려가면 자기네들이 완전 밀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는 것을 줄르고 줄러서 168만 9천원에 나머지 구역은 전부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입장은 어디가 거북해졌느냐, 괴산교육청하고 음성교육청이 거북해졌습니다.

또 여기 이 두교육청이 절차상에 어떤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예요, 하자는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균형상 문제가 왔다 이거예요. 이러한 교육청은 분명히 내 교육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립니다.

이 실무진에 대해서는 인사고가에 반영해서 인사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근무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철저를 기해서 단속을 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 김정길 위원

감사합니다.

좀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감사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추가 질문 없으시죠?

● 김정길 위원

예.

● 의장 박재현

없으시면 다음으로 조일환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정말 질문내용에 대해서 제 본인은 상당히 그 만족한 해답을 얻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시간이나 이런 것에 제약이 돼서 제가 본 질문에서 빼고 보충질문으로 돌린 사항이 몇 있고, 또 의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과 중복이 돼서 저는 그때가서 보충질의로 할려고 했던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지금 말씀하신 43인치 텔레비전, 이것도 저도 좀 이야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단가입찰이나 또 입찰을 하는 과정을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예산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 이제 설계금액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예정가를 산출하고 그 다음에 낙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 교육감님도 43인치 텔레비전 그 구매에 대해서 애로도 말씀하시고 현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면서,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입찰방법을 고수하다 보니까 교육기자재가 신속히 보급은 안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만 된다면은 여하튼 우리는 싸게 사는 것이 좋겠다. 또 두번째, 두번째 제가 거기서 모순을 발견한 것은 우리 교육청이나 관에서는 어떠한 공사나 어떤 물품구입에 항상 적정선의 이익은 보장은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사나 어떤 개인이 많은 손실을 봐 왔다. 소위 상인들의 경쟁의식을 지나치게 유발해서 이런 상질서를 해켰다 하는 이러한 여론도 우리는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난 '96년 '97년에, '97년에는 아직 안 그렇습니다만은 '96년에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본 결과는 교단선진화를 비롯해서 그 영향으로 각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서도 상당히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추정컨데 아마 4,50억에 가깝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물품구입에 대해서 교육감의, 소위 직장의 수장의 철학이 뭐냐, 저는 그것을 사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장이 체력에 중점을 두느냐, 학력에 중점을

두느냐, 인성에 중점을 두느냐, 이것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설계금액 산출방법이나 예정이 산출방법을 할 때 무리하게, 무리하게 최저가를 택하다보면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본의 아니게 보급이 늦어지거나 또 우리 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하는 소위 상거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까 사교육비 말씀을 저도 이제 드리는데 아까 영어교육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교육을 하는 3학년 교실을 세 학교를 참관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 학부모가 수업현장을 봐야 된다. 거기에 위컴을 통한 발음교정, 화면을 통한 실물, 합한 이 발음이나 언어의 지도는 좀 과하게 말하면은 저같이 영어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다. 또 지금 일선학교에서 지금 사교육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영어에 원인이 있습니다.

절대로 영어과의 필요없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충주청에서는 이미 3월 20일부터 3월 말일 안에 수업, 영어수업 참관인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학부모가 영어수업 현장을 보는 겁니다. 보면은 느껴요. 영어과의 필요없다. 발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위컴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발음은 제가 듣기에도 원음에 가깝습니다.

자재도 좋았고, 단지 여기서 문제점은 몇명이나 학부모가 참가를 하느냐, 남자도 있느냐 했더니 그 참가율은 거의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니다. 100%는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참관이나 앞으로 학교에 회의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방과후에, 우리 학교로 말하면 방과후지만은 지금 자모들도 거의가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좀더 교육수요자에게 서비스 봉사한다면 우리 교사가 좀 괴롭더라도 일과시간 이후에 수업공개를 하는 겁니다. 또 학교의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이렇게 변할 때에 교육수요자로부터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이런 제도의 계획이나 의도는 어떤가 하고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공건물은 자체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또 준공검사를 안해도 쓸 수 있게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소위 학교설립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임을 받은 겁니다. 저는 지금도 미준공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 이것을 어떤 법이나 질서 과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관이니까 충분히 그 과정을 행정에서 하는 건축행정을 대행해도 무

리가 없겠다 하는 근본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일선에 검사를 했는데 준공상태 이전에 있더라도 일반 건축행정이 뭐예요, 가사용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서상에 남게 가사용 승인같은 그런 형식은 밟아서 그런 것이 돼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가사용 승인의 어떤 행정절차가 빠졌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동초등학교 강당신축 문제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교동초등학교 이 건축장소가 지금 노상에서 운동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결할 때 속기록을 검토하고 의안을 검사한 결과 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교동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로 세로 내지는 지금 교동 강당이 지어지는 소위 운동장이 강당건축으로 할애되는 면적을 제 나름대로 대충 환산해 봤습니다. 했더니, 그때도 이 건축이 운동장으로 올 경우에는 1,600명, 1600명의 학생이 운동장을 쓴다고 가상하고 운동장의 면적이 최하 5천해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공고상으로는 5천해배가 넘습시다만은 실제 화단, 급수대, 조회대, 이것을

제하면 그 당시에도 모자랍니다.

또 운동장은 이것은 의무시설이고, 강당은 권장시설입니다.

권장시설로 인해서 지금 제가 대충 환산해 본 것은 제가 이 도면을 그려가면서 실측을 해봤습니다만은 겨우 약 3,400해배정도예요. 이럴 때 5억이라는 예산때문에 중간체조도 못하는 이런 학교 운동장을 만든 꼴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주의를 환기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이런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교동초등학교 강당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 의안을 보면은 예산이 8억 3,600만원입니다.

그때 설명서에 들어온 것을 보면은 여기에 약 4억 여원이 모자랍니다, 예산이.

그래 예산이 모자르면 어떻게 짓겠느냐 했을 때에 국장님 말씀이 청주교육청에 건물 매매비, 건물 판돈 이런 거 해서 약 9억 얼마가 있으니까 예산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총예산 9억 얼마로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당시에 이것은 면적과 예산을 13억 얼마로 통과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관리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기관을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 심의한 과정 실무자도 만났고 또 실제 이

안이 대단히 부끄러우나 대단히 부끄러우나 앞으로 이렇게 옮겨서 짓는다면 제가 짓는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짓는다면 이것을 수정의결을 해야 될 줄 아는데 행정의 관계가 있으면 해다오 했더니 제가 충주, 도청, 청주시청 세군대의 종합의견은 이것은 자기네들이 의견으로 말하라 하면은 어떤 책임있는 답변은 아니다. 이것은 13억이 소요되는 공사로 애초에 속기록이나 애초에 4억 얼마를 보태서 공사한다는 전제니까 그냥 수정의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교동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느 지역 위원 한분한테 말씀을 했다 이거예요.

제가 충주교육만 관계하는 위원입니까? 우리 정위원이 제천만 관계하는 위원입니까? 김정길위원님이 청주만 관여하는 위원입니까? 분명히 이 문제는 개인은 개고 사의는 사입니다.

사적으로는 되죠, 사적으로는.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형식을 요청했을 때 어느 개인에게 나는 전달했다 하는 얘기는 객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도 공과 사를 분명히 해주셔서 공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김영세

다하신 건가요?

● 조일환 위원

아니요. 또 있어요. 제가 아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아가모운동 저도 참 좋은 정책이고 정말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아가모운동에 겹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절약운동으로 발전하고 지금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얼마나 위기입니까?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안을 내놔야. 그런데 여기에 욕심을 낸다면 앞으로 이런 쪽으로도 발전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제가 여쭙겠습니다.

WTO다, OECD다 해서 국산품 이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부의 정책으로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국민차원의 계몽운동으로 같은 질이라면 국산품을 애용하자 하는 것이 일본 국민의 공통된 인식이고, 사회의 운동입니다.

차제에 우리 교육자가 제가 어느 학생을 가르칠 때도 무슨 이 물건이 국산품이다, 아니다, 쓰지 말아라, 이러지 않더라도 국산품을 비교한다든가 해서 얼마든지 계몽할 수 있지 않겠느냐.....

● 의장 박재현

조위원님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시간을 좀

● 조일환 위원

그러십시다. 차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위원님께서 없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10분내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조사한 쓰레기 수거 현황을 제가 사실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불행하게 같은 규모의 학교에서 규격봉투를 2만원어치, 6만원어치 쓰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은 100만원이상 쓰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어느 학교가 환경운동을 잘했고 정부시책을 잘했느냐, 또 전혀 안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김정길위원께서 환경과목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지만은 우리 교육이 지금 얼마나 환경이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이 아가모운동을 지금 어차피 시작하셨으니까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 쓰레기 수거가 원만히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겸해서 시책을 펴 주신다면은 그야말로 충북교육에 가장 자랑스러운 이러한 아가모운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마치고겠습니다.

● 의장 박재현

답변해 주세요.

● 교육감 김영세

예. 조일환 부의장님 참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 하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여러가지 교육행정에 반영토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기 질문하신 중에서 실무자가 답변할 것도 있고 그래서 실무는 실무자에게 이임을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기자재 납품에 있어서 적정선에서 하고 또 설계산출도 그와 같이 옳을 것이다 하는 의견은 저희 규정상에 그런 면을 존중해가지고 작년까지는 건설 설계 낙찰액도 88% 기준인데 금년에 90%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납품이 사실상 입찰에 붙일 시에는 90% 낙찰이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정가가 아닌 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나 학부모의 이해가 분명히 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청주 지방에서 이따 조국장님 말씀하세요, 초등국장님께서, 영어 관련 초등학교 영어과의 시범,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공람시킨 거 그 사례를 좀 말씀하시고, 그래서 학부모 참관의 방안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사례를 들었고 이 건축의 건물 준공검사는 이것이 작년부터 개정돼 가지고 이 학교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촉진법이 돼서 이 우리가 행정관서의 준공검사는 안 받습니다.

여기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이따가 시설과장이 참고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동초등학교 강당때문에 참 우선 처음서부터도 이것이 여하튼 간에 소방도로라도 사람이 지나 다니는 인도 위에다가 이 구름다리를 해가지고 강당을 세운다는 게 이게 사실 마땅치 않

[제75회-제2차]

은 겁니다. 이게 궁여지책으로 나온 거지, 그런데 교동초등학교의 강당신축비를 바로 홍재형 지금 KBO(대한야구협회) 총재가 자기 모교입니다. 모교이니까 그 강당신축비로 5억을 특별교부금을 얻어 왔어요. 특별교부금으로 얻어와서 그 5억을 가지고 교동초등학교에다가 강당을 지으려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저히 교동초등학교 운동장에다가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강당을. 강당을 넣을 수가 없어요, 좁아서.

그래서 궁여끝에 그 뒤에 용암중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두학교가 쓰겠으니 인도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것도 안되는 것을 무슨 건축법시행령 관계규정을 다니면서 고치고 개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이런 제도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일부층의 호응을 얻어 청주시에서 이를 통과시켜가지고 한 거죠. 이것이 전임자가 해 놓은 것이라 내가 가타부타 더이상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부결이 됐는데 부결된 데 대한 의견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애초에 설계한 대로 구름다리를 박아가지고 중학교가 쓰게 하는 규모에서 줄여야지만 되게 돼 있어요. 교동초등학교 그 강당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구름다리를 세워서 하는 공법에서 밑에 설계부분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 금

액도 줄어야 합니다. 당연히 줄어야 해요.

주는데 교동초등학교에다가 정식 규격대로 강당을 한번 넣어 보세요, 지금 얘기한 것보다 더 운동장이 좁아지고 그야말로 운동장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용도 교실 형태화로 해서 홍재형씨가 얻어 온 그 예산 범위안에서,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도도시건설자문위원회에 통과된 것이 언제던가, 12월 28일인가 통과됐죠? 며칠이죠?

(시설과장 “12월 6일이예요”하고 말함)

아, 12월 6일. 불과 12월 말에 이것을 마감해야 되는데 12월 말까지 우리가 이것이 그 전에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그 전에 명시이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해에 예산집행 못하면 이 돈 돌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5억이라는 돈을 돌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5억이라는 돈을 돌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불과 그 기관이 20일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것을 발주를 할려니까 연말 폐쇄 사흘 앞두고 입찰을 본 겁니다. 사흘 앞두고 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은 공유재산 계획에 이게 8억 얼마로 계획을 받았으면 이 변동사항 보고를 했어야 옳죠.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어야 옳는데 도저히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사흘 앞두고, 연도 폐쇄 사흘 앞두고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낙찰시켰으니 5억을 돌려보내

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렇게 이것을 줄이다 보니까 이게 5억 미만으로 낙찰이 됐어요. 5억 미만으로 낙찰이 되다보니까 5억 미만은 공유재산 승인사항에 안들어 갑니다. 5억 미만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실무진에서는 이것은 5억 미만이 됐고, 또 시간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유아무아 넘어 간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관계직원들은 대개의 경우 그 지역교육위원들이 대체로 그 지역의 교육에 대해서 가장, 뭐 도교육위원이지만서도 출신구에 대한 그 교육위원의 위상도 있고 그 분에 대한 뭐 여러가지 있으니까 청주시 교육위원한테는 협의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교육위원회까지 이 변동사항을 승인을 맡아야 할 것이냐, 안맡아야 할 것이냐 그 규정 적용 여부는 고사하고 일단 보고절차는 밟아야 옳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이 시간 준비를 차리지 못했고 그간에 교육위원회가 실제로 안건을 공유재산변동안을 못냈으니까 다음 공유재산변동을 낼 적에 그때 같이 낼려고 이렇게 대비를 했던 것으로 봅니다.

여하튼 간에 일찍이라도 보고드렸어야 할 것을 이것은 참말로 내가 교육위원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절차가 늦어지고 잘못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인지하시고 또 실제로 5억 미만이 됐을 적에는 이게 승인사항이 안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변동사항만은 보고를 했든지 뭐를 맡았어야 옳다. 내 이렇게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강당은 지금 학교운동장은 추세가 이 조그만, 지금 3천평 갖고 학교를 집니다.

3천평 갖고 학교를 지면은 도저히 부족교실 이제는 특별교실 못놓습니다.

그런데도 일선학교에서는 다 강당 쥐 달라고 매달려요. 그러나 앞으로의 추세는 바뀌 집니다.

이제는 운동장 없는 학교도 나오고, 강당 없는 학교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강당은 그냥 공동 집회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강당, 체육관 같은 거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고 운동장도 공설운동장 같은 규모로 학교에서 쓸수 있는 운동장이 다시 만들어져가지고 운동장 없는 학교가 그것을 공동 활용하도록, 이런 패턴으로 바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일본에도 그런 사례 학교가 있고 대만에도 있습니다.

홍콩에도 있고, 내가 다니면서 본 그 학교들이 이 소규모 학교에서는 앞으로 운동장도 볼수 없고 강당도 못둡니다.

이런 데는 몇학교가 연합을 해서 그 지역

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동초등학교는 이 운동장에서 사실 이걸 못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도가 교동초등학교 특수 목적에 의해서 나온 거고, 여기 사용하지 않고 하면은 반환을 해야 할, 2년 이상이 넘으면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할 입장에 있었어요. 불과 사흘 앞두고 이게 낙찰이 돼가지고 이것을 한 건데 그때 급한 나머지 임기응변상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모운동의 절약운동은 사실상이 아가모운동은 우리 나름대로 기대효과는 이게 좀더 사회운동화 되었으면, 사회적인 기풍으로 진작됐으면 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기관이 사회운동으로 지금 전개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실천하면은 이 효과가 발전됐을 적에, 효과를 거뒀을 적에는 일종의 사회운동화 될게 아니냐, 또 어릴적부터 이런 기풍을 길러주면 이것이 곧 성인이 돼서도 기틀이 되는 거니까, 바로 교육에서 이것을 앞장서야 되겠다는 뜻에서 우리는 이것을 실천운동으로 이것을 시작한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회운동이 되면 더이상의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의장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야말로 국민들의 절약기풍으로 이

운동이 승화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도 의욕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진에서 내가 지적한 대로 더 보완해서 말씀해 주세요.

(초등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눔)

●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조부의장님께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교육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각계에서 우려를 많이 하시고 특히 부형들이 상당히 좀 마음으로 긴박한 이러한 심경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과외를 하게 하느냐, 이런 생각으로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부형들이 받아 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이렇게 이루어 집니다 하는 것을 작년 1년동안, 후반기에 와서 특히 집중적으로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저희가 생각해 봐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월에 들어서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영어수업을 공개 발표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음성 남신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고 이 남부 3군 청주시, 청원, 괴산까지 마쳤습니다

내일은 사실 제천에서 이 모임을 갖고 연구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교육위원회 관계로 14일로 연기되어서 마지막으로 실시합니다.

이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영어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느냐, 이것을 수업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생님들에게 좀 제가 다니면서 업무를 좀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선생님들을 되도록이면 선생님들의 수업내용을 여러 사람한테 홍보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과외 부교재를 근절하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 부형들의 홍보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하기를 한번만 실시를 한다,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이후로 각학교에서 영어수업을 다 한번씩은 공개를 했습니다, 부형님들께.

그런데 앞으로는 시기도 수시로 어떤 행사가 있을 적마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상도 부형들만 하지 말고 지역 사회 인사를 대상으로 수업을 공개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영어교육 내용이 3학년에서 지도하고 있는 영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보시는 분으로 하여금 이해가 가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영어교육 내용이 어려하기 때문에 부교재나 혹은 과외가 필요없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부형님들에게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도 어떤 학교에서 탄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일부러 담임선생님들이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라도 자기 학급 어린이들 부형, 또는 전교 부형님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영어수업을 공개를 하고 또 홍보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시일이 있어야 여러가지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조일환위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텔레비 구입시에 적정가격으로 다가 집행할 방법이 없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조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물품을 제조할 때에는 원가계산을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우리가 가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 기성품을 우리가 구입을 할 때에는 시장 조사를 해서 매매 실효가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가격을 저희들이 결정하면은 대부분 이게 입찰이 되면은 저가 입찰자를 우리가 낙찰자로 정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자기들이 저가로 입찰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정가격을 매겨 놔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낙찰이 되면은. 그래서 이 문제는 법적으로 이 적정가격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부실공사로 말하면 부실시공, 부실시공을 막기위해서 지금 최저 낙찰제가 아니고 지금 어느 선상에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구입할 때는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이 회계관계법규를 개정할 때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정가격으로 업자도 손해를 보지않고 또 저희가 구입할 때도 고가로 구입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준공 상태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용 승인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방법이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건축물을 준공할 때에 그 사용승인 또는 준공전에 가사용 승인제도는 이 건축법에서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을 검사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가사용 승인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건물 건축할 때는

가사용 승인이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이 준공검사 전에 개교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부분준공이나 또는 예비 준공검사의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좀 처리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동초등학교가 아까 11억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저희들이 들었는데 그것은 당초에 교동초등학교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에도 저희들의 총예산액은 8억 3천 6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국고가 5억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3억 3천만원을 더보태서 총금액이 8억 3천만원 정도로다가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우여곡절 끝에 이게 참 돈이 교동초등학교가 신설되는 대로다가 강당신축비를 준다고 그럴 때 저희들은 못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지을 때가 없다. 처음부터 이 내용은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실무자 입장으로는 돈줘도 우리는 못받겠다. 목적적으로 더군다나 주니까 거기 아니면 질 때가 없는데 질 장소가 없다. 그러니 못받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까지 나오니까 심지어 그쪽에서는, 돈을 주는 쪽에서는 노상 위

에다가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방법까지 제시를 해가면서 돈을 저희들이 받아왔던 겁니다, 내용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만 뒀습니다만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또 교동학교 출신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그래 그 분이 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돈을 못받는다고 하느냐 하는 그러한 언질까지 주셔서 우리가 돈을 받아다가 여러가지 어려운 고비를 겪으면서 시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통과를 봤는데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해가지고 부결이 되면서 저희들은 어차피 돈을 반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다가 최소한의 강당으로 줄여서 저희들이 그 지금 착공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김정길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다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이 내용을 본 청주시 위원이니까 시교육청에서 김정길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나왔던 거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김정길위원님한테 저희 도교육청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입찰을 보는 것은 전부 시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제가 전언해서 드린 건데 그것을 저희 도교육청에서 드린 걸로 그렇게 잘못 들으셨

다면은 제가 그 말씀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교육청에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저희들이 물었더니 시교육청에서 얘기가 “아 그 우리 저기 저희 시출신이신 김정길위원님하고 이것에 대해서 통과되도록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린 것이지 저희 도교육청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실무진 입장으로서 어쨌든 이 문제가 변경이 됐으면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은 드리지 못한 것을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국장님 나오신 길에 제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조일환 위원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허심탄회하게 이 교동초등학교 문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회라 하면은 공적인 그러한 임무가 있는 거고, 저희들이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한계를 밝혀놔야 되는, 이 속기록에도 이것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개정은 됐습니다, 시행령에 그렇죠?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조일환 위원

개정이 됐는데도 부결이 됐어요.

법에는 적합하나 그 지역이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결시켰어요. 저도 그것을 회의록까지 봤습니다.

그 때도 그러면 법이 개정이 안되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현재는 불법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동장에 짓는 방법을 다시한번 모색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한번 모색을 한다면은 이렇게 그때의 결정이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 짓겠다.” 하는 것을 의결한 게 아니라 “다시는 모색이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말의 그걸 밝히는 게 아닙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아, 그것은 저희가.....

● 조일환 위원

아, 잠깐만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조일환 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교육감님 말씀대로 보고든 어쨌든 간에 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셨어야 돼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산이 8억 3천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12억 얼마가, 한번 그 자료를 보십시오. 2층으로 하고 밑에 이 터널 만들어야 되고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예산은 현재의 청주시 교육청의 예비비로 저희들이 시설, 교육재산 매각대에 돌려놓은 것이 9억 4천만원, 현재 예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예산분이 나왔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가 있는 시에서는 5억 미만은 재의결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안으로 봐서는 교동 초등학교의 전체의 사업규모는 변동된 사항이 5억이 넘는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이럴 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통보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소위 수정의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책임을 묻거나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또 위원회의 통보를 해야되는 사실이 청주교육청이든, 충청북도교육청이든 어느 위원님 개인의 통로를 위해서 위에서 전달되는 이러한 관행은 수정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수정할 사안이 생기면 수정의안을 내겠습니다.

● 의장 박재현

<p>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만재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죠.</p> <p>● 정만재 위원 정만재 교육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생략합니다. 이상입니다.</p> <p>● 의장 박재현 그럼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교</p>	<p>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세분 위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제 3차 본회의는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6시 51분 산회)</p>
--	---

<p>0 출석위원 : 11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윤.</p>																				
<p>0 출석공무원 : 17명</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33%;">교육감 김영세,</td> <td style="width: 33%;">초등교육국장 조성근,</td> <td style="width: 33%;">중등교육국장 송대현,</td> </tr> <tr> <td>관리국장 신재철,</td> <td>공보담당관 김홍묵,</td> <td>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td> </tr> <tr> <td>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td> <td>초등장학과장 김천호,</td> <td>초등교직과장 노현우,</td> </tr> <tr> <td>중등장학과장 이재관,</td> <td>중등교직과장 김영기,</td> <td>과학기술과장 백경흠,</td> </tr> <tr> <td>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td> <td>총무과장 고일영,</td> <td>행정과장 이상찬,</td> </tr> <tr> <td>재무과장 이기수,</td> <td>시설과장 박성근.</td> <td></td> </tr> </table>			교육감 김영세,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김홍묵,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박성근.	
교육감 김영세,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김홍묵,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박성근.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7년 4월 10일 (목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 기타안건 처리

附議된 案件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조일환위원 외 3인 위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김광수, 박동기, 안병일, 이경윤, 이상 네분 위원님께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교육감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초등장학과장과 중등장학과장께서 신병치료와 교육부 회의 참석관계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1시 00분)

●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요령과 방법은 어제와 같으며 한 위원의 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번째 질문자이신 김광수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김광수위원 발언대로 나눔)

● 김광수 위원

김광수 교육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망과 식견 높은 교육철학을 지니시고 21세기로 도약하는 선진 충북교육을 총 책임지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전문 교육자로서 장학업무를 관장하시고 계시는 국·과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그 노고를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요, 정책적인 문제라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의논한다는 뜻에서 교육감님의 고견과 아울러,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초·중등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보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의 남녀 성비에 관해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로서 일찍이 뜻있는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해왔으며, 매스컴에서도 성비에 관해서 여러차례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지난 '96년말 우리 충북교육자의 실정을 살펴보면은 초등의 경우 교장 267명중 여자

교장이 6명, 교감 287명중 여자교감이 8명인데 평교사는 총 4,149명중 남자교사가 2,305명으로 55.7%, 여자교사는 1,835명으러 44.3%로 되어 있으나 원로교사, 주임교사 등을 제외하면은 직접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는 남녀 선생님이 반반정도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신규임용 후보자 경쟁시험 합격자를 보면은 250명중 남자가 48명, 여자가 202명으로 여자 합격자가 80%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등을 보면은 중·고를 합하여 교장 137명중 여자교장이 2명이고, 교감은 139명중 여자교감이 6명입니다.

그리고 평교사는 총 5,216명중 남자교사가 3,332명으로 63.8%이고 여자교사는 1,884명으로 36.2%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학교를 보면은 평교사가 2,911명중 남자교사가 1,593명으로 54.7%이고 여자교사는 1,318명으로 45.3%로 오히려 초등보다 1%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문고등학교를 보면은 평교사가 1,019명중 남자교사가 747명으로 73%, 여자교사가 272명으로 27%이고, 실업고등학교는 총 교사 1,286명중 남자교사가 992명으로 77%, 여자교사가 294명으로 23%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남자교사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신규임용후보자 경쟁시험

합격자를 보면은 총 67명중 남자가 14명 20.9%이고 여자가 53명으로 79.1%로 나타나고 있어 점차 여자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인 교대, 교원대 및 사범대 및 교직 희망 사례를 보면은 여학생은 아주 선호하는 반면 남학생은 별로 희망하지 않는 현상으로 점차 일선학교 교사의 성비는 절대 여성 우위로 되어질 것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부장적 가족제도 남성중심 사회제도 또한 교육도 남성중심으로 이제까지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성비율 균형이 여성편중이 될 경우 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중등 전과정을 여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경우 인성발달, 체력발달, 또한 심성 정립 등 인간형성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10대는 핵가족 시대의 출생아로서 대부분 부모로부터 과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므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독선적인 심리요소가 많이 잠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 사회는 산업화 과정에 분권화로 윤리 도덕은 실종되고 사회는 무질서해져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기능한 사회에 범죄는 증가하고 기능화,

흉폭해 지며 인명마저 경시하는 범죄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교육 또한 동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자의 성비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해 가면서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런지, 또한 교육자의 남녀 성비 격차로 하여금 교육이 정책성이나 방향이 이대로 좋을 것인지, 또한 교육자의 성비가 앞으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그 견해와 또는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초등·중등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기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기위원 발언대로 나옴)

● 박동기 위원

박동기 교육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세계화를 열어나가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세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5회-제3차]

본 위원은 충북교육 발전과 교육개혁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의 비전(VISION)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부가 지방교육 행정조직 관리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기획관리실을 모든 교육청에 확대 실시한다는 바 본도의 계획은 어떠하며,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체 승진계획은 가능한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 하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개혁의 추진실적과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 등 학교경영 전반에 대한 학교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 학교에 대하여 특별한 행·재정 지원을 실시한다는데 본도의 계획과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 학년 초부터 실시하는 3학년 초등영어교사 지도에 따른 문제점 가운데 특히, 앞으로 3년간 수급할 지도교사 확보방안, 근간 논란이 많은 영어과외 문제, 그리고 현재 담당교사들의 영어교수 능력 차이 등으로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현직 교사 중에 영어실력이 현저한 교사를 양성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책적으로 전국 교육대학에 영어과 부전공

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각 사범대학의 영어과 전공자를 채용을 하여 교과 전담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도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기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일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위원 발언대로 나눔)

● 안병일 위원

안병일 교육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현 의장님과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김영세 교육감님을 위시한 관계관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2기 교육위원회가 출범 한지도 벌써 2개 성상이 다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교육을 통해서 관료주의적이고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열린 민주화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며 개성을 살리는 이러한 교육자치 실현을 해보겠다고 하는 소박한 꿈을 안고 교육위원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느정도 기여를 했는지 성과는 있었는지 자성해 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와 신념으로 이 어려운 교육 현실 속에서 충북교육을 한단계 더 끌어 올리는데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질문도 열심히 일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교육가족들의 궁금한 사항과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영세 교육감님께서서는 취임초 교단선진화 4개년 계획을 발표하시고 과감하게 추진하심으로서 충북교육의 선진화에 초석을 다지고 계시며 교육부로부터 많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학생 과학교육의 요람이 될 충북과학교육원을 최신 시설로 도심에 이전하는가 하면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공업계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가칭 충북전산기계공고에 13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999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계심은 실로 의욕적인 일로서 그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 의견과 아울러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업계 학교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21세기를 이끌어 나가는 주력 학과인 전자 통신 분야의 학과를 한 곳에 집중 배치하는 것 보다는 충북 공업계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앞서가고 있는 청주기계공고에 학과와 학급을 조정해서 전자기계과를 신설해 주심이 옳다고 사료되는 바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주기계공고 기숙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기숙사는 280여명의 외지 학생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구 교육위원회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3층 건물입니다.

건물을 지은지가 40여년이 넘는 오래된 건물을 더구나 개조해서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이 낡고 배관시설 또한 부식이 되어서 난방 등 어려운 문제점이 끈임없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이나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기숙사 신축을 누차에 등하여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적지않은 예산을 투자해서 매년 보수하고 있으나 이는 밀빠진 독에 물 붓기로 가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업 입국을 위한 산업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부에 건의하여 현 시설물을 철거하고 제자리에 새로운 기숙사를 신축해 주심이 좋을 듯 싶어 건의하니 교육감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중등교육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도 교육청 관내 지하수를 단일 급수하는

학교가 16개 교입니다.

'96년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난 이들 학교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물, 공기, 그리고 영양분이 필수라면 물은 인간생명의 근원으로서 그 중요성은 제언을 요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은 인간의 건강 수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연구결과에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려고 무공해 생수를 개발 시판하고 있는가 하면 도시인의 상당수가 생수를 음용화 하고 있고 지각없는 일부층은 더 좋은 물을 마시겠다고 수입 운운하는 차제, 한참 발육 성장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먹게 해서는, 먹어서는 안될 물을 운명적으로 마시게 했다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크게 반성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96년 3,4분기 수질검사 결과 관내 16개교가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이 난 사실이 본 위원이 '96년도 정기감사 결과 서면답변 자료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특히, 이들 학교는 90%이상이 오지에 위치한 지하수만을 단일로 급수하는 학교라는 데서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들은 상당수가 도시로 이주해서 양질의 교육의 받고 있는가 하

면 고향을 지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온갖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내일의 꿈을 키우는 어린 학생들에게 먹어서는 안될 물을 마시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다시한번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또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내 16개 지하수 단일 급수교를 도교육청에서 특별 관리하여 보건소나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두곳에서 검사하는 것을 정밀도나 신빙성이 높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괄 검사케 하고 결과에 따라 불소, 아연 등 인체에 특히 해로운 물질이 나오는 관정은 과감하게 폐쇄하고 이들 관정에 대하여 간이식 암반관정을 설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0m 관정 100m 내지 150m를 파서 양수기를 설치하는 경우 500만원이면 무난히 시공할 수 있다고 하는 지하수 개발 업자의 확답을 들은 바 있고, 관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식수로 부적합 판정이 난 우물에 대하여 약물소독이나 청소, 또는 대형 정수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개소당 35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미봉책 보다는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500, 600만원 선에서 관정이, 더구나 암반관정이 설치된다

고 하면 이 또한 깊이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97년도 교육부로부터 충청북도에 교육환경 개선교부금이 285억원이 배정됐고, 자체 예산 포함해서 397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집행의 모를 살린다고 하면 10여개 소에 암반관정 설치는 그리 힘들지 않고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관계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96 정기감사 결과 교육청 관계관 서면답변중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이 난 학교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첫째,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매 분기별 1회 실시하고 물탱크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를 6개월에 1회 수질상태를 점검하며, 3. 교육환경개선 특별교부금을 활용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상수도를 인입을 해서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잘 하셨으리라 믿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서 다시 확인하고자 하니 이들 16개 관정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2년 2,4분기에 실시한 음성 청룡 초등학교는 불소, 아연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옴으로써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이 남에 따라 이 대책으로 운반급수, 개인지참, 그리고 정수기 설치를 한다고 보고

를 했는데 3,4분기 수질검사에는 부적합 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간에 관정을 설치했는지 상수도를 인입해서 수질개선을 했는지 결과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일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윤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윤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경윤 위원**

교육위원 이경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현 의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단 선진화와 열린 교육을 통하여 학습력을 제고 시킴으로써 충북교육을 혁신하려는 교육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해 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교사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자기 생활을 설계하여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어린이 교육에 성실히 매진할 수 있도록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매우 신중히 검토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랑과 봉사로 열심히 가르치고 꾸준히 연구함으로써 자기 개발에 앞장서며 창의적으로 성실히 근무하는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인사정책이 개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년초 교육감께서 말씀하시어 일선 현장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 벽지학교 가산점수 조정 검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대계이고 교육은 백년대계하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먼 미래를 내다보고 끈기와 관심을 가지고 오래오래 참아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교육의 결과는 최소한 20년이상은 지켜보아야 그 결과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데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는 정책을 다시 또 바꾸어 버린다면 교육정책도 하루하루 변해가는 유행가나 여자들의 패션 복장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1992년 3월 인사 이전에는 교사들이 단양군 근무를 기피함으로써 신규교사가 단양군에 대량으로 배치됨에 따라 단양교육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제도가 지금까지 지속되었다고 하면 아마도 단양군은 젊은 여교사 천지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벽재 오지 학교에 교육은 또한 어

떤 방향으로 흐르겠습니까.

그러나 1992년 3월 인사부터 6년 이상의 장기근무를 서약하고 단양군에 전입한 교사는 전체 초등교사 161명의 85%가 넘습니다.

그나마 출퇴근이 가능한 제천에서 통근하는 42명을 제외하더라도 60%가 넘는 교사들이 노후된 서너평 남짓의 사택이나 전월세를 얻어 기숙하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학습의 개별화와 온종일 특활반 운영으로 괄목할 만한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 현 교육감께서 작년부터 교단선진화를 위해 우수 기자재를 대량 구입해 줌으로써 더욱더 교육성과에 많은 활기를 얻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전입한 교사들은 부모, 형제, 친구는 물론 사랑하는 처자식과 헤어져 가족들에게는 자식으로서 죄송하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미안한 마음을 억누르면서 동절기에는 눈길과 빙판길에 생명을 걸고 맡겨진 책무를 완수하려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벽지 오지학교 가산점수 하향 조정 검토에 대한 논의는 도내 오지군의 벽지학교는 물론 학부모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사기를 떨어트리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많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우수한 교사를 유치하기 위해

도내 벽지학교 가산점수를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문제해결의 접근방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행정 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도시 학교의 여성화, 고령화 현상은 '94년도 농진법 개정 이후 전교육감이 가산점수의 서비스 차원에서 농진 대상 학교수를 대폭적으로 추가 확대 지정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여건이 열악한 벽지학교에서 갖은 고난을 무릅쓰고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불이익과 피해가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지역에 우수 교사를 유치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몇가지 제시한다면 첫째, 근무여건에 따른 가산점수의 차별화를 위해 농진 학교의 제조건을 면밀히 심사하여 실제로 근무여건이 나쁜 학교만을 농진학교로 과감히 재조정 축소하고, 둘째, 도내 최고의 경합지구가 된 오지 군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장기근무 포기를 수용해 준다고 하면 적체된 인사교류도 활발해지고 도시 지역에 능력있는 우수한 교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의 교원인사 정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15광복 이후 수많은 연구시범학교 운영 협의회를 통하여 교육의 당면과제 해결과 새로운 교육 이론 및 방법을 학교 교육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기여하여 왔음은 지대한 성과라고 아 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학교 운영에 있어서 몇가지 개선하였으면 하는 일선학교 교사들의 소리가 있어서 이에 저는 조심스럽게 본인의 과거 연구학교 운영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에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구학교 지정에 있어서 학교 수를 대폭 줄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97학년도의 연구학교는 초등 48개교, 중·고등 30개교로 10명 내외의 연구원, 연구사의 지도가 내실있게 될 수 있을런지가 의심스럽고 학교 현장은 주어진 주제 해결을 위하여 열중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는 가급적 지정학교 수를 줄이는 것이 일선 학교 현장의 소리입니다.

둘째, 군지정 시범학교의 운영이 1년차로 마감하는 것은 지양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다 1년차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2월에 연구학교 지정을 수임받아 3월 한달동안 여러차례의 협의를 거쳐 겨우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다 보면 4,5월이 다 지나가고 7월 하순부터 8월 말까지는 여름방학, 9,10월엔 체육행사 활동, 예능 실기대회 준비 등 실로 헤아릴 수 없는 행사 수행에 전직원이 전력하다 보니 11월에 공개되는 연구결과는 제대로 정리도 못한 상태로 공개를 하게 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셋째, 연구 공개 보고 일정을 고려해 봄이 어떨까 합니다.

근간의 연구학교 연구보고는 대략 오후에 계획하여 약 30분간의 학교운영 보고 및 주제 해결 보고로 그치며, 주제에 해당하는 1시간 정도의 학습지도 공개로 그치고 있으니 이 찐막한 시간에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그리고 내실있게 이를 참관하며 일반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뜻에서 볼 때 연구 공개 보고 일정을 재검토해 봄이 어떨까 하는데 교육감님, 또는 관계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교육감님의 그간 교육개혁 차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잘하시고 있는 점 한 두가지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자체감사 담당공무원들의 자율실천 다짐대회라든가 대회의 중요성도 좋지만 그 내용이 딱 좋습

니다.

또 금년부터 고등학교 급식 8개 지정 시범 실시, 또는 환경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교육감님의 쓰레기 아가모운동을 적극 벌려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는 점 시기적으로 볼 때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끝에 모으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지역적으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 한번쯤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초·중학교 통합 운영 문제는 구체적으로 운영방침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다시한번 무리없게 이루어져 성공적인 학교 운영이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네분 위원님들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답변 준비 관계로 정회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박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까.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교육감 김영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녀 교사의 성비율 격차에 따른 교육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의 성비율을 살펴보면은 초등 여교사는 47.6%, 중학교 여교사는 46%이며, 고등학교 여교사가 23.4%로 초등과 중학교는 여교사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고등학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성비율 격차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초등에 있어서는 도시 학교의 경우 체육 교과 지도 및 체육선수 육성이 가장 곤란한 점에 있으며, 공통적으로 교내외 생활지도 및 학급배정의 어려움과 여교사의 출산 휴직 등으로 교원 수급상의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근원적 문제는 신규 채용 교사의 90% 이상이 여교원으로 현행법 상에 균형적 임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교사들이 일부 지역이나 학교에 편중 배치되지 않도록 시·군 인사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고 특기 교사들의 우선 전보를 강화하며 여교사의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은 신규임용이나 기간제 교원, 기간제 교원은 임시교사를 말합니다.

기간제 교원을 적시에 보충하여 성비율 격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가장 염려하시는 사항으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구성이 여성으로 편중됨으로 인해 유치원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인간성 형성과정의 여성화 되어 감을 염려하여 주셨는데 본인도 평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항으로 남녀 교사의 성비율 균형 문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전국 신규교사 전용 합의 시마다 남교사의 일정비율 채용 문제도 대두되고는 있으나 남녀 평등의 기본권 침해 문제 등으로 사실상 협의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국가적인 정책적 차원에서 남자교사 채용비율 확대 등을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이를 다소나마 극복하고 해소하는 방안으로 본도에서는 학교내 각종 특별활동을 활성화하고 전학생이 참여하는 1인1기, 1교1운동을 적극 권장하며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호연지기를 길러주기 위한 청소년 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야영활동을 최대한 많이 실시하여 나가도록 할 방침임을

[제75회-제3차]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동기위원님이 첫번째로 질문하신 기획관리실 설치계획과 직원 사기 차원에서 자체 승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설치 문제는 지방교육자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교육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방교육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획 관리 및 정책 개발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기구 설치 및 정원 책정에 관한 근거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총무처와 재정경제원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의 작은 정부 구현 시책과 국가 경쟁력 강화 문제와 연계되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 계획으로는 기획관리실장을 국가직으로 보임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직 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부장관과 총무처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지방직으로의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학교평가제 실시로 우수 학교에 대한 특별한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는데 본도의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학교평가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전반기 1차 과정평가와 후반기 2차 결과평가를 실시하며, 학교평가 결과에 따라 탁월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직원들은 인사상 우대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94학년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중 국립학교를 제외한 공·사립 학교를 평가하여 학교운영이 우수한 초등학교 28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 도합 48개교를 교당 800만원씩 총 3억 8,400만원을 지원하고 교직원들을 근무성적평정시 우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병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기계공고의 전자통신분야의 학과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1세기를 대비한 공업계 학교 균형발전을 위해 염려하여 주시는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청주기계공고의 학과 개편은 '97학년도 실업계고등학교의 학과 개편 계획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정밀기계과 8학급중 3학급을, 전산운영 기계과로 개편하여 주교 항공정비과 2학급을 항공과로 개편하겠다는 요구가 있어 이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중 항공정비과를 항공과로 개편하는 데는 별도의 예산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공과로 개편하여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나 정밀기계과를 전산응용기계과로 개편하는 데는 실

습실 증축 및 내부시설 확보에 최저 15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교육부의 직업교육확충사업비 국고보조 지침에 따르면 은 공업계 고등학교 신설 및 학과의 신·증설에 따른 시설 신축과 기자재 확충비로 한정되어 있어서 학과를 일부 조정하여 개편하는 데는 일체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전액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많은 예산을 들여 개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지방재정이 허락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학과 개편이 이루어져서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가 충북 도내 공고의 효시로서의 가장 앞서가는 학교에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경윤위원께서 질문하신 벽지학교 가산점수 하향조정 검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벽지학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및 동시행령에 의하여 지정되는 학교이며 벽지 지역 학교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수는 교육 공무원 승진규정 제34조1항2호에 의거하여 법령에 의한 가산점 2점과 교육감 재량 부가 가산점 2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벽지학교 26개 학교와 32개 분교에서는 전체 교사의 3.4%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승진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하여 벽지학교 근무를 경쟁적으로 선호하고 있고, 군·읍 소재지나 시지역 학교

에는 다경력자나 여교원의 근무를 희망하는 등 도·농 벽지간의 순환근무상 불균형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교직원과의 대화시에 본인이 밝힌 바 있습니다만은 벽지 근무 가산점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교원들이 승진 가산점에 얽매이지 않고 본래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갈 방침이나 현재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도·농 벽지 간 질적인 교육격차의 해소는 물론 전체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충북교육의 균형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벽지 가산점을 근본적으로 없애자는 것은 아니며, 기본 점수를 살리는 범위내에서 각종 가산점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조정하되 승진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벽지점수 부여에 대한 대다수 교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미 획득한 벽지점수는 그대로 인정하고 벽지학교로 새로 전보되는 교사들에게는 조정방안을 고려하는 방안과 또 한편으로는 벽지점수를 현행대로 유지했을 경우에는 벽지 아닌 도시·군·읍 소재지 교사들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벽지학교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벽지학교 근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농업진흥 지역학교 축소문제와 장기근무 포기자에 관하여는 앞으로 교육부에서 입법예고가 끝나

고 개정 작업중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정안이 시행 공포되어 벽지학교와 농진학교등 각종 가산점 부여 방법이 교육감에게 이입될 경우에 벽지학교 점수 교정과 농업 진흥지역 조정문제는 일선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관계 기관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본도 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연구 검토할 사항이며, 오지지역 군내에 근무하는 교사의 장기근무 포기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인사 관리제도 규정에도 장기근무 포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장기근무 포기 교사들은 전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다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고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계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초등교육국장 조성근입니다.

먼저 김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녀 성별 격차 해소책에 대해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도의 초등교사의 경우 여교사가 약간 우세한 입장입니다만, 그러나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지도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일부 과목을 특활지도 또 생활지도, 심성지도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항상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로서는 장학지도시에 철저히 점검하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동기위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구체적인 지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초등 영어교육이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초등 영어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으므로 영어수업은 교재내용을 중심으로 한 노래, 연극, 게임, 역할극 등 흥미 중심의 학습으로 전개하며 정확한 발음지도를 위해 첨단 어학실습기, 비디오 등을 활용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보충 심화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EBS 초등영어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 영어수업에서는 문자지도를 삼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우고 쓰는 식의 과제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영어수업 공개를 통하여 과외 및 부교재가 필요하지 않으며 성적도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하지 않고 문장으로 서술한다는 점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영어 지도교사의 자질을 높이고자 '91년도부터 영어연수를 실시해 온 바 외국 현지연수 금학년도 3학년 담임교사 일반연수와 영어 심화과정 연수 등 현재까지 1,434명을 연수하였으며 금년에도 695명을 단재교육원 연수와 외국 현지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영어교육을 위하여 교대에서 영어부전공제 실시와 영어교과 전담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위원님의 고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대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지도하게 되자 영어학점을 4학점에서 8학점으로 높여 영어교육을 중시하고 있으며 또 금년 신입생부터 영어전공 학생 40명에게는 18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교과 전담제 운영은 지난 겨울

방학중에 초등교사 290명에게 영어 심화과정을 연수시키고 각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 교과전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어지도는 담임교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전담제, 교체수업을 하는 것까지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9학급이상인 6개교에는 이미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어교과 전담제는 정원이 확보되는 대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영어교육 정착을 위한 장학활동을 강화하고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는 학습지도 방법 연수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전교사에게 자율연수를 적극 권장하여 초등영어 교육이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운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서는 연구학교 수를 대폭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연구학교가 많으면 내실 있는 연구학교가 운영이 어려울 것이며 연구여건이 갖춰지지 못한 학교에 연구과제를 주었을 때 학교가 직면하게 되는 고충을 헤아리시고 주신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 교육부 지정과 도지정 연구학교 시범학교 92개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78개교이나 교

[제75회-제3차]

육부의 지침에 의거 추가 지정된 학교가 있어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92개교는 대부분 교육부에서 교육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정된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92개교중 교육부 지정이 17개이고 도지정이 75개교입니다.

특히 금년에 연구학교가 대폭 증가된 것은 교육부에서 열린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열린학교 시범학교를 다수 지정하였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위원님의 고견과 같이 연구 학교 수를 줄이고 운영을 내실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이 두번째로 말씀하신 군지정 시범학교의 운영을 1년으로 마감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고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의 연구기간으로는 주어진 과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숙된 교육내용을 1년간 다 들어서 공개 보고하는 시범운영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과제를 주고 해결하도록 하는 연구시범은 군지정이라 하더라도 1년으로 마감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지적하신 이후 일정으로 개최하는 연구보고회 개선방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보고회가 짧은 시간내에 형식적으로 마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보고회는 1일 1종으로 하고 당일 일정은 연구보고, 수업참관, 연구과제에 대한 협의화 토론, 연구에 관계되는 전문인사의 특강을 듣는 등 연구보고회 자체가 참가 회원의 연수가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계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중등교육국장 송대현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김광수위원님과 안병일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교사의 성비율과 그 격차에 따른 교육방향을 질의하셨는데 이미 교육감님과 초등국장님께서 여러가지 방향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히 중등국의 입장을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김광수위원님께서 교육자의 성비에 따라서 인간형성의 문제와 또 양성과정의 문제 등을 제시하셨고 여기에 따라서 세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교육자의 성비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중등교사의 경우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71명중 여교사의 비율은 35.2%인 1,786명으로 이분들이 특정학교에 편중될 경우에는 생활지도라든가 담임배정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학교별로 균형 배치하도록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후임 보충, 교육감님께서 익히 말씀드렸던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교육자의 성비가 교육정책이나 방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교육자의 남녀 성비는 교직에 대한 매력의 남자의 경우에는 떨어지고 여자의 경우에는 올라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배양인 사범대학의 학생 구성부터 여성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에서 비롯되어 해마다 여교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학생모집의 남녀학생 구성비의 조절, 신

규교사 임용시험에서의 남녀별 모집비율의 책정 등의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에는 상당한 연구 검토 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교육자의 성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교육자의 성비 균형 유지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는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신규교사 임용시 남녀 비율을 제도적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럴 경우에 여성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 교사의 질 저하라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교육자의 성비가 지나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에는 인성교육면에서 성격의 남성화 또는 여성화의 경향을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으나 성비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교육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특히 여성화가 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일위원님께서 항시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어려운 학생들의 숙식문제까지 걱정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기계공고는 1966년 9월 6일 건축된 본

관 기숙사 1동과 1969년 12월 27일 건축된 별관 기숙사 1동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외지 학생 280여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현 기숙사 건물면적이 4,300㎡로서 이를 개축할 경우 약 43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청주기계공고 기숙사 건물 이동은 건물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로서 내구연한인 45년에 도달되지 않았기에 구조물의 안전도에 문제가 없는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배관시설, 난방시설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수선하여 계속 사용할 계획이며, 현재 정부예산 지침상으로 보나 또는 우리 교육청의 교육재정 형편으로는 직접교육비에 소요되는 재원도 부족한 실정으로 간접교육비에 해당되는 기숙사 개축에 43억을 투자할 재원이 없음을 말씀드리오니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본도 교육청 관내 지하수를 단일 급수하는 16개교의 '96년도 수질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세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요지는 첫째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 질소 초과함이 아연 초과와 같은 불량 음료수에 대하여는 지하 100m 내지 150m의 암반 관정을 사서 관정을 500만원내지 600만원이면 설치 가능한데 재개발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첫번째 요지가 있었고요,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96년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에 따른 교육청의 조치결과를 밝혀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고, 세번째 요지는 '96년 2,4분기 실시한 음성 청룡초등학교의 수질검사 결과 아연 및 일반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었는데 동년 3,4분기 수질검사에는 빠져 있는 이유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일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물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라나는 우리 2세들에게 건강을 위해서도 한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병일위원님께서 지난 '96년 정기감사 시에도 학생들의 음용수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셨으며 오늘 행정질문 시에도 짚어주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마시는 음용수에 대하여 특단의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인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 질소 초과 및 아연 초과와 같은 불량 음료수에 대하여는 지하 100m내지 150m의 암반 관정을 500만원내지 600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한데 재개발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말씀에 대하여 현재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정수 가능한 음료 시설인 경우 약 3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수기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하 암반 관정을 파는데 500내지 600만원이 소요되므로 예

산을 조금 더 보태서 근본적이고 연구적인 시설을 갖추는 것이 타당한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100m내지 200m 지하 암반 관정을 뚫었을 경우 질산이나 아연이 검출되지 않을까 하는 검토와, 다시 아마 파더라도 또 아연같은 것은 광물질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나올 염려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 검토와 시설비에 있어서도 500, 600만원으로 관정을 뚫는 것은 가능하나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갖추어 사용하기에는 약 2,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하여 암반 관정이 아니고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암반 관정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질문하신 '96년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에 따른 교육청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3.4분기 학교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 지하수를 단일 급수하는 학교중 16개교가 부적합 판정되었으나 이중 충주 노은초등학교를 비롯한 15개교는 부적합 요인이 대장균균 검출 또는 일반 세균 초과로서 연 2회 물탱크 청소, 철저한 음료수 소독 또 소독이 불가능한 급수시설은 끊어서 먹도록 조치하

여 안전 급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교 청원 두산초등학교의 부적합 요인인 질산성 질소 초과로 이는 음료수 소독 또는 끓여서 먹어도 유해성분이 없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 음료시설 개선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96년 11월 정수기를 설치 안전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6년도 2,4분기 수질 부적합 학교중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아연 및 불소초과 학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 장연초등학교는 질산성질소 초과인데 '96년 11월지하수를 재시공하였습니다.

당초 지하수를 업자가 시공했으나 업자의 시공이 부적합해서 업자가 부담해서 다시 재시공을 해서 좋은 물을 마시고 있으며 괴산의 장풍초등학교의 질산성질소 초과는 '96년 9월 정수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성의 청룡초등학교의 아연 초과는 금년 3월 예산을 배정해서 정수기의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 충북공고의 불소초과는 '97년 1월 역시 정수기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음료시설중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학교는 영동 매곡초등학교로서 이 학교의 경우 영동군에서 운영할 상촌상수도 시설이 준공되는 '97년 9월에 상수도를 인입할 예정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으며 현재 음료수 소독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세번째로 질문하신 청룡초등학교에 대

하여 2,4분기 검사에는 아연 및 일반세균이 검출되었는데 3,4분기에는 빠져있는 이유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음성 청룡초등학교는 '96년 2,4분기 수질 검사시 아연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3,4분기 부적합 학교 명단에 없는 것은 음성군 보건소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 교육청의 수질검사는 연 4회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부적합 판정이 된 음용수에 대하여서는 정밀검사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4회의 검사중 연 1회는 반드시 정밀검사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룡초등학교의 조치결과는 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집행청 관계관의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광수 위원

없습니다.

● 의장 박재현

없으세요?

● 김광수 위원

예

● 의장 박재현

그러면은 다음 박동기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동기 위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 의장 박재현

다음 안병일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안병일 위원

뭐 보충질문이라고 할 것 보다는 답변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성실성 있게 해주셔서 별달리 할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답변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것은 그 검사 종류가 여러가지를 색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단순한 일반세균 대장균에 몇 가지만이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보고된 사항도 청룡의 우물에서 아연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연은 구토, 피부질환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아주 좋지않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3,4분기 수질검사에서는 시·군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검출이 안됐다. 그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 단일 급수를 하는 16개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특별 관리해서 시·군 보건소가 아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중등교육국장님의 말씀은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알고 더할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현

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경윤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경윤 위원

질문은 없습니다.

다만, 느낌으로 말씀을 한마디 드리면 질문요지서의 시나리오를 며칠 전에 내드렸더니만은 그 시나리오의 내용과 아주 명쾌한 이런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일선 선생님들의 소리를 충분히 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 의장 박재현

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조일환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말씀하시죠.

● 조일환 위원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지금 면

밀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17개 사항을 제가 요청을 했다가 위원님들이 질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 남성 교사의 대비, 이것은 전체 또는 상당히 문제도 있고, 근본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학교단위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탄금초등학교의 경우 교장, 교감 그리고 주임선생님 세분을 제외한 27명의 교사중 21명이 여교사입니다.

한명도 평교사 중에는 남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이런 균형을 잡아 주시면 좋으나 평교사의 인사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주청에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가지 인사규정에 얽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박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 교과전담제에 대해서 제가 현지 영어수업을 참관하고 교장·교감 그리고 여섯 3학년 담임선생님과 간담회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전담제 얘기를 토론의 주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담제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청 불).....

두번째, 초등학교에서는 누구나가 그래도 담임을 원하고 소위 중치교사나 이랬을 때

는 전담제 교사를 사실 기피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영어교사가 그런 교과에 들어갈 소지가 있다. 그 다음에 문제는 학교에서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3,4학년에 담임을 맡은 소위 교사간의 위화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학년의 담임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 선생님들 말씀은 영어 전담제를 할 경우에 영어를 전문으로 그러한 교과로 지금 평가다 이런 것이 없는 한 전담제는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심화하고 질을 높인다는 그러한 측면은 전담제가 좋다, 그러나 실제 일선교사들의 이야기는 좋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진지의 문제에 대해서 어제 중등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등록상의 상주교사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하나의 규제법처럼 선생님들에 대해서 농진지역에 있는 상주제 이전이 실제는, 실제로 관행이 안돼 있습니다.

충주 사시는 분이 어디까지가 상주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천같은 경우에 청원인 경우에 청주와 청원군 이런 것을 어디까지를 상주제로 보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제도같은 규정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이것이 오히려 실효성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교육감님의 앞으로의 진로를 묻겠습니다.

● 교육감 김영세

우리 조일환 부의장님 여러가지 사려깊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말씀한 남·녀교사 성비 격차, 이것은 지금 인위적으로 지금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만일에 이걸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면 은 남녀 평등 차원에서 여권운동가에게 큰 항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 이렇게 너무 집중돼 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죠, 너무 문제가 있는데 이 초등교사의 전보는 시·군교육청에서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단지 신규교사 또 시·군을 벗어난 시·군간 인사교류를 할 적에만 도에서 관여를 하는데 그러한 학교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처음 듣는 얘기에요. 앞으로 시·군 교육장에게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을 내가 권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뭔가 조정을 해야지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단지 청주시내 학교의 경우는, 청주시내 학교의 경우는 아까도 내가 포괄적으로 말씀 했지만서도 이 남자교사의 경우는 전부 노령교사예요. 전부 노령교사이고, 여교사도 이게 다경력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주임 할 선생님이 없어요, 실제로. 젊은 교사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가산점 기회를 부여하겠다. 유인책을 써야지 젊은 교사, 중견 교사들이 청주시내, 충주시내에 들어오는데 지금 청주시내가 충북교육의 42%를 점하고 있어요, 인구수대로요.

이게 지금 황폐화가 돼 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유인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벽지학교 점수를 기본 점 2점 주고, 교육감이 주는 점수를 2점 주는데 우리 본도에서는 이미 시행단계에서 이 걸 만점을 다 줬어요. 그 교육감이 줄 수 있는 2점 중에서 재량을 가졌던 겁니다.

폭을 조정할 수 있었던 건데 그 점수를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벽지만 갈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뜻은 그 교육감이 주는 2점 범위안에서 다소 과감을 하는 방안에서 현재 골간을 유지하는 방안, 또 하나는 그걸, 그랬더니 벽지학교에서 이제 여성 영농후계자들이나 이런 데서 반발하고 여러가지 벽지지역의 반발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 내가 얘기할 적에도 그런 것을 조정을 구상해 보겠다는 얘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벽지에 가서 그 점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인정한다. 새로이 벽지로 보내는 사람부터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볼까하는 이런 방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지금 가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줄 잘못 와전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또 이게 한번 주기가 쉽지 한번 쥐 놓고서 깎는다면 이것이 문제가, 반발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지역에 학교의 유인책으로서 인문고등학교에서는 특히, 도시지역의 인문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기피합니다.

졸업반 담임을 기피해요. 왜 고되게 하고서 나도 벽지 가가지고 점수따서 승진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입학성적의 90%이상을 올린 그 선생에게는 가산점을 부과하겠다, 또 그 교감까지도.

이렇게 유인책을 썼고요, 또 각종 시범학교같은 경우에 이 도시지역 학교에 좀 그런 특혜를 줘서 시범학교 지정을 해서 그런 데다 가산점을 주는 방안, 이렇게 해서 형평을 유지하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근원적인 해결은 어려워요. 근원적인 해결은 없고 또 하나는 이 교직이 여성화 돼 간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뭐 우리 교육위원님들 전부 외국 돌아보셨지만 지금 여성화 돼 가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금년도의 채용시험은 좀 낮습니다.

남자교사가 적지않은데 작년도 '95년 말에 한 '96년도 수급계획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50명 채용했는데 전원 100% 여교사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필연적으로 여교사, 여성직화 되는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여성직이, 이제 교직이 여성직

[제75회-제3차]

화 된다면 당연히 따라서 간부도 교장, 교감도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교장, 교감도 역시 여성 교장, 교감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문제예요, 지금.

시간문제이고, 단지 어느 학교 한 학교에만 편중됐다면 조금 인사 수급상에 기술이요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군 교육청에서 전보 군 내에 그런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시·군 교육장들한테 조정토록 권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교사의 경우 영어 전담교사까지 한다면은 우선 교사 티오(table of organization)에 문제가 있어요. 티오에 하나씩을 더 얻어야 되는데 이 티오 조정권이 전체 티오 조정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초등학교에 영어 전담교사 한 학교에 하나씩 둔다고 해도 이게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전담교사를 원치 않습니다.

전담교사를 할 경우에는 담임도 없어지고 거기에 어떤 담임 수당도 없고 전담교사는 수당도 없어요. 이 전담교사에 대한 수당과 어떤 가산점제를 인정을 해가지고 좀 특혜를 주자, 이번에 교육감 회의에 제안도 했었어요. 제안도 했는데 현재로서는 해결할 방안

이 없다 이런 대답이었고, 그래서 전담교사의 경우 이 연구사례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가산점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대폭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갈 것이나 그 전담교사 성격과 같은 대안으로 지금 영어교사로서 심화 교육을 받은 사람을 한 학년에 하나씩을 배치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대개 구심 역할을 하도록, 이 사람들이 전담교사 역할같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였고, 또 장차 2,3년 후에는 이게 이제 제도상으로 해결이 됩니다.

왜 해결되는고 하니 교육대학에서 지금 영어 교육과정이 대폭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대학에서 영어교육과정이 3배로 확대가 됩니다.

지금 4학점인가 되는데 12학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대학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 영어지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자체에서 양성이 돼 나옵니다.

자체에서 양성이 돼 나오고, 앞으로는 그렇게 돼 나오기 때문에 채용시험이나 이런 데도 당연히 그런 과목이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시작 단계에 2,3년이 기로지 1,2년 후서부터 점진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 부의장 조일환

마치 충주청이 인사를 잘못했거나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장내 웃음소리)

그러니까 그 인사제도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교육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 박등기 위원

영어과 학점이 12학점입니까, 18학점입니까?

● 교육감 김영세

그것이 현재 3배수로 늘었어요. 교육과정 이.

●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교육대학에서는 12학점으로 전체 학생을 늘이고 또 심화과정을 이수하는 학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18학점입니다.

● 의장 박재현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는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평소 느낀 충북교육의 현안문제와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대책 등 교육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깊이있는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

다.

이 모두가 궁극적으로 보다 발전적인 충북교육을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행정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본도 김영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교육행정 질문에서 논의되었던 제반 사안들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7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폐회)

[제75회-제3차]

0 출석위원 : 11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윤.

0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김영세,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중등교육국장 송대현,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김흥목,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교지과장 노현우,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박성근,

(별첨1)

議 事 日 程(案)

第75回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97.4.8~4.10.(3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7.4. 8(화) 10:00 11:00	<input type="checkbox"/> 교육위원 협의회(교육위원실) <input type="checkbox"/> 개회식 [제1차 본회의 개의] 1. 제7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1997. 4. 8 ~ 4. 10.(3일간) 2.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기타안건 처리 [제1차 본회의 산회]	
'97.4. 9(수) 11:00	[제2차 본회의 개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제2차 본회의 산회]	
'97.4.10(목) 11:00	[제3차 본회의 개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 기타안건 처리 [제3차 본회의 산회] ※ 폐회	

